

고아도 필요! 하이원리조트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칭찬의 진정한 교육환경, 문화 예술이 흐르는 자연사리, 자연주인과 함께
그라나기는 대안적 기술성 그리고 스웨덴 아문과 나누는 따뜻한 온열
세상에서는 지금 하이원리조트와 파랑길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2009
12

Vol. 209 December

우리문화

2009.12

통권 209호 December

우리문화

- 01 전남문화원의 날
- 02 연합회 소식
 - 국민의 시낭송의 밤
- 06 칼럼
- 10 문화광장
 - 한글을 배우는 짜야짜아 族을 찾다
- 14 문화원 이야기
 - 서천·동자북문화역사마을
 - 16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 평가워크숍
 - 18 어르신문화학교
- 22 문화원 탐방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26 문화둘러보기
 - 북촌생활사박물관
- 32 전국 농업인 품물경연대회
- 36 나의 책수집 편력기
- 42 가고문적
- 46 기획
 - 한국의 예절
- 52 연합회 레이더
 - 문화원 이모저모
 - 58 2009 지역문화아카데미_지역문화활동가 연수
 - 59 우리문화 소식
 - 60 원장동정



표지 | 전국농업인품물경연대회
 지난 11월10일 열린 품물경연대회 축하공연모습.
 한 데 어루러져 흥겹게 즐기는 자리가 되었다.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박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2009 전남문화원의 날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정원강 전라남도지회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지난 11월 23일(월) 나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천여 명의 전남 22개 지방문화원의 가족들과 많은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문화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도와 나주시가 후원했다. 전남문화원의 날 행사는 문화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과 정보를 교환하여 전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전남 22개 지역문화원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표 및 전시에 참여했다. 식전공연으로 전남도립국악단의 공연이 있었으며 강진갑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 기념식에는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도의원, 나주시장, 나주시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前 전남도지회장, 지방문화원장 등이 모여 의식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라남도 지역문화창달에 기여가 크신 분들과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장상인 지방문화원 시상식이 있었으며 문화원 임직원 시상도 함께 했다. 상패로는 청자매병이 수여되었다. 수상자는 지방문화원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되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전남도지사 초청 전남문화원장 오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2009 전남문화원상 수상자

▶ 우수 지방문화원

수상구분	문화원	원 장	주 소	비 고
전라남도지사상	보성문화원	정형철	보성군 보성을 보성리 351	상 패 (부상없음)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영암문화원	신태군	영암군 영암읍 371-1	
한국문화원연합회	진도문화원	김정호	진도군 진도를 동외리	
전라남도지회장상			1195	

▶ 유공 지방문화원 이사, 사무국장

수상구분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지회장상	이 사	박종길	광양문화원	상 패 (부상없음)
		이재관	목포문화원	
	김요성	신안문화원		
	위철량	장흥문화원		
사무국장	박승배	무안문화원		
	한현선	영광문화원		
	김준혁	나주문화원		
	지영희	화순문화원		

제21회 전남향토문화상 수상자

▶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도지회장상

수상구분	성 명	소 속	비 고
본 상	김해근	담양문화원 이사	상패
	송철환	고흥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상금
	박정하	곡성신문 사장	각 100만원

제11회 전남향토문화연구 논문공모 수상자

▶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도지회장상

수상구분	논 문 명	비 고
최우수상	• 보성소리 유래의 淵源	상장
	임기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상금 100만원
우수상	• 장흥군의 문화유적 보존실태와 개선방안	상장
	김상찬 (장흥문화관광해설협회장)	상금 70만원
장려상	• 독립운동가 배지문의 삶과 활동에 관한 연구	상장
	권도균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재학)	상금 50만원

연합회 소식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시낭송의 밤 시로 두드리는 가을,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곱번째를 맞는 시낭송의 밤, 국회에서 열려

지난 11월 12일(목) 오후 5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시낭송의 밤 행사가 열렸다.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7회를 맞았다. 매해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시심을 만끽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환영인사로 시낭송의 밤이 시작되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세계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틈틈이 시낭송을 했다' 고 말하며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자작시와 애송시를 낭송하는 것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기 국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시 낭송회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인들, 전국의 문화원장님과 문화가족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며 특별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박계동 국회의사무총장님께 감사를 전한다' 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계동 사무총장의 격려사로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박계동 국회의사무총장

안상수 국회의원



김동건 방송인

오세철 공연(폴피리)



국회 합창단

국회의원과 시인, 문화원장, 문화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진 한마당

첫 번째 시낭송은 유안진 시인의 자화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권영한 태백문화원장이 칼릴 지브란의 '사랑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간격'을 낭송하였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악기가 대금이라는 김동건 사회자의 소개로 KBS국악관현악단 부수석인 한충은의 대금으로 꽃길과 snow를 연주해 객석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이근배 시인이 자화상을, 전병헌 의원이 정호승의 시 '별들은 따뜻하다'를 낭송했다. 이어 서명희 시장이 이어졌는데 객석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권용태 한국문화원연합회 고문이 자작시 '사랑에 대하여'를 낭송했으며 김영환 의원은 자작시 '볼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를 낭송했다. 초청공연으로 국회합창단은 세노야 세노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경북궁 타령을 합창하여 의원회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어 제7회 전국창작시 공모 대상 수상자인 지창구 씨의 수상작 "거꾸로 있는 도시"를 낭송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근배의 '대백두太白頭에 바친다'를, 오세영 시인은 '김치'를 낭송했다. 정정희 충남지회장(당진문화원장)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외워 낭송해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다. 이어 축하공연으로 오세철(경기도 무형문화재지정)의 폴피리와 오은명의 춤과 반주가 있었다. 메나리와 한 오백년 아리랑연곡 등이었다. 풀 한 장으로 각 음색이 표현되는 것을 보고 관객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이어 박중우 금천문화원장은 '5월의 작약'을 낭송하였고, 한분순 시인의 '소녀'를,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은 자작시 '파르호 지나가며'를 낭송하여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퓨전아티스트인 주영숙 씨는 자작시 '다시 일어서는 노을'을 낭송하며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국회에 나와 낭송하게 되어 오히려 장애에 감사한다는 말로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제7회 전국창작시 공모 금상 수상자인 이완순 씨의 수상작 물안개를 낭송했으며 이어 시낭송의 밤의 대미를 가수 임희숙 씨가 Lover's Concerto, 내하나의 사람은 가고, 진정 난 몰랐네 등을 부르며 청중의 환호를 받았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이 주재한 만찬 리셉션 자리에서 건배제의를 청하며 시의 밤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시낭송의 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창작시와 국회의원이 애송하는 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시성(詩性)을 통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국민 정서 함양을 증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거꾸로 서 있는 도시

지창구 | 제7회 전국창작시 공모 '대상' 수상 |

간밤에 내린 비가
페인 길 위에 작은 호수를 만들었다
아침 일찍 하늘이 내려와
구름 구름 쉬고 있다

물방울을 달고 있는 개뿔나무가
하늘을 거꾸로 받쳐들고 서 있다
물방울마다 거꾸로 서 있는 도시

한참을 들여다보면
하늘과 호수는
섞였다 풀어지고 풀어졌다 섞인다
호수 속에 혹은 호수 밖에
영거주춤 서 있는 내가 보인다
거꾸로 혹은 바로 서서
경계 안 혹은 경계 밖에 서서
물방울 안을, 아니 물방울 안에 서서
물방울 밖의 세상을 엿보고 있다

개뿔나무가
질기게 붙들고 있던 나를
놓친다
호수 속 하늘이 찰랑 부서진다
거꾸로 선 것들이 바로 되는 순간,
그 순간
잠깐 일어나는 파열음에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는 도시

지창구 | 제7회 전국창작시 공모 '대상' 수상자



한충은의 대금연주



권영한 태백문화원장



정병국 국회의원



박종우 금천문화원장



물안개

이완순 | 제7회 전국 창작시 공모 '금상' 수상 |

강은 산을 따라 흐른다
크고 작은 마을 이루어
사랑 나누어 주고
넓은 별을 만나면
산그늘에 오두마니 앉아
운명처럼 하늘을 받아들인다

구름이 흘러들면
구름을 안고
바람이 오면
말없이 바람 품는다

고개 넘어 해가 지면
강은 홀로 남아
아침 해 다시 올 때까지
하늘이 그리워 물안개를 만들고
하늘 맞닿도록 키워
마침내 하늘과 한 몸을 이룬다.



크
리
리
크



문화도시를 넘어

크 리 리 크 | 크 리 리 크 | 크 리 리 크 |
 크 리 리 크 | 크 리 리 크 | 크 리 리 크 |

오늘날 한국은 문화예술의 전국시대

최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역사도시, 행복도시, 환경도시, 국제도시 등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도시 정체성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과거 문화 경시주의가 만연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상진벽해의 감을 금할 수 없다.

시의 문화예산은 늘 부족했고 문화에 대한 관심도 소홀했던 적이 불과 수년전의 일인데, 오늘날 우리의 도시들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각종 시책과 행사를 대범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TV 드라마 (시티홀, 선덕대왕, 태양을 삼켜라 등)를 보더라도 가장 적극적인 스폰서가 기업이 아닌 지자체인 것을 보면 한국은 모든 도시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문화전국시대를 맞이한 듯하다.

각 도시들이 문화와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통합적 시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유엔과 유네스코가 선도한 세계문화발전 10개년계획(1988-97)의 최종 결론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열악한 문화예산보다 많은 문화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지자체도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을 달성하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스스로 문화도시라고 천명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도시들만이 문화도시, 역사도시라고 지칭하면서 타 도시와 차별화해 왔지만 지금은 많은 도시들이 스스로 문화도시라고 지칭하거나 전략적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거침없이 표방하고 있다.

즉 문화 인프라의 상대적 강점을 지닌 도시뿐 아니라 열악한 도시도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창의도시란 무엇인가?

그러나 요사이 일부 도시들이 도시의 정체성을 재수정하면서 문화도시라는 명칭보다는 창조도시, 창의도시라는 새로운 용어를 채택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중 몇몇 도시들은 유네스코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창의도시 Creative City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제기구가 공인한 창의도시 타이틀을 얻기 위한 준비를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 유네스코의 창의도시사업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문화도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지난 2004년 10월, 유네스코 제170차 집행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살려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며 아울러 이 같은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 간 비경쟁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국 도시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영상·음악·공예와 민속예술·디자인·미디어아트·음식 등 모두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청 도시들은 자신의 문화적 특성과 환경, 선호에 따라 이들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09년 6월 현재,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는 총 14개국 19개 도시에 달한다. "디자인 분야"에 베를린·부에노스아이레스·몬트리올·나고야·고베·선전 등 6개 도시가 승인되었고 "음악분야"에 볼로냐·세비야·글래스고·겐트(벨기에) 등 4개 도시, "문학분야"는 에딘버러·아이오와시티·멜번 등 3개 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에는 아스완·산타페·가나자와 등 3개 도시, "음식 분야"는 포파얀(콜롬비아) 1개 도시, "미디어아트 분야"에는 리옹 1개 도시, "영상분야"는 브래드포드 1개 도시가 승인되었다. 이중 포파얀은 남미음식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일본의 3개 도시와 중국의 1개 도시가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도시들 중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공식 가입된 도시는 없지만 서울시, 이천, 전주, 김해 등 일부 도시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기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공식가입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을 진행 중에 있다.

창의도시의 지향목표

최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에서 주제발제자로 참가한 앤디 프랫 교수(런던정경대(LSE) 도시연구소장)는 기존 도시와 창의도시의 차이점에 대해 “창의도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도시의 대응방식이며, 도시와 관련된 기존 정책들이 주로 경제적인 면에 치우었다면 창의도시는 소수의 정치참여,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문화적 풍부함 등 다른 측면에 집중해서 경제중심주의를 해소한다” 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창의도시의 개념이 현대도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창의도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들면서 기존 도시들은 미인대화라도 열등 서로 경쟁해왔는데 창의성이란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발전 궤도를 걷는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의사형성 방식도 훨씬 민주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이 자타가 인정하는 창의도시로 성장한 비결에 대해 런던은 도서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인력에 대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므로 큰 변화가 생겼다면서 문화향수층이 성장하면서 예술활동이 상업성을 갖게 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도시들이 창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들이 창의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인책과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 자발적



활동에 의해 창의도시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창의성과 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이 좀 더 산학협력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교육은 창의성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취업이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며 그들이 종사하는 기업 규모도 아주 작은 것이 특성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이들의 능력과 역할을 관리, 조정해주고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 창조적 잠재성을 가진 인재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책결정자들이 창조적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비공식적이고 상업적인 부문을 인정하고 여기에 깊이 관여하는 의식”이 필요함을 권고하였다.

지자체 문화정책의 새로운 과제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도시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발전 정책 이행에 있어 몇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문화도시와 창의도시는 기본적으로 정책목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문화도시의 정책방향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 문화복지의 진흥, 문화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경제적 수익성 창출에 목적을 둔, 전



행사시 외국 예술단체를 초청하는 수동적 교류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화된 교류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 하에서 오늘날 모든 도시들은 과거와 달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측면에서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중앙정부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창의도시의 개념적 부상은 도시의 미래적 목표일 수밖에 없다.

주민의 창의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산학협동 체제 속에서 문화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명제이다. 우리 도시들도 유네스코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문화정책의 방향, 즉 창의도시의 개념을 하루 빨리 수용하여 국제적 차원의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통적 문화정책의 기본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사회, 경제, 환경 등 인접 부문과의 합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도시의 기획에는 무엇보다도 통합적 사고 holistic approach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창의도시의 주민의 생산적 창의력을 배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때문에 “문화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의 민주화”는 단순한 문화복지 차원의 정책을 넘어 주민과 예술간, 주민과 지자체간의 쌍방간의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는 진일보한 개념이다.

지역주민 위주의 창조활동이 강조되고 주민에 의한 문화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점은 국가차원의 정책보다 소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차원의 정책에서 훨씬 효율성이 높다.

셋째, 창의도시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념이다. 즉 박제화된 문화활동이 아닌 늘 유동적이고 수용되는 흐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포함된 도시들은 해당 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 나아가 창조적 공동활동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제,



허 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문화광장

한글을 배우는 짜아찌아 族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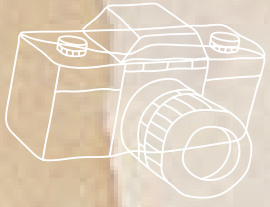
더위가 막바지를 치닫던 지난 8월7일 밤9시, TV 뉴스에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소수부족이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하여 자기네 부족 말을 표기하기 위해 한글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초등학생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드디어 한글 세계화의 첫발을 댄 쾌거를 이룬 것이었다. 더구나 첫 발을 댄 그곳이 술라웨시의 부툼 섬, 그곳은 내가 젊어서 5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면서 출장을 자주 갔던 우중판당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으니 더욱 반가웠다. 마침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까 궁리하던 때라 3일 후인 10일날 아침 인천공항을 떠나 자카르타에서 1박을 한 후 곧장 술라웨시로 날아가 한글채택선포식행사 후 첫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배운다는 그 학교를 찾았다.

그때까지도 학교 건물에는 바우바우(Bau-Bau)시장을 비롯한 지역유지들과 한국에서 간 훈민정음학회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며칠 전 그곳에서 한글채택공식선포식을 하면서 썼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그 먼 오지를 단숨에 달려온 나를 반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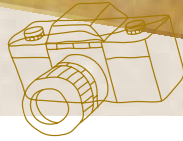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서쪽 끝인 수마트라에서 동쪽 끝인 이리안자야까지 거리가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 끝 거리와 맞먹을 정도로 광활한 지역에 약 17,000여개의 섬으로 된 나라이다.

사람이 사는 섬만도 무려 2천개가 넘고, 약300여 종족이 280여개의 부족어(部族語)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한글을 공식문자로 택한 '짜아찌아(cia-cia)부족처럼 대부분의 부족들이



Indonesia



말은 있어도 문자가 없어서 대부분이 ABCDE(아베체테에로 읽는다)로 표기되는 '바하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식 알파벳으로 언어를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날 만난 한글교사 빠 아비딘(Bapak Abidin)이 내게 "알파벳으로는 짜아짜아어를 한글처럼 완벽하게 표기할 수가 없어 한글을 쓰게 되었다"는 설명처럼 알파벳으로는 부족어를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에 유학하여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서울대 이호영 황효성 교수와 함께 짜아짜아어 교과서를 저술한 바 있는 빠 아비딘은 짜아짜아어 부족의 족장아들로서 그곳 고등학교의 현직교사였다.

내가 갔을 때가 마침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방학 중이라 한글로 인쇄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아비딘의 집에서 만난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초등학생아이가 몽당연필을 손에 쥐더니 내게 "사우"라는 한글을 써 보였는데 마치 신기한 장면을 바라보는 것 같은 감격에 내 온몸이 찌르르 감전이 되는 것 같았다.

'사우'는 인도네시아 말로는 '까유(kayu)' 즉 '나무(tree)'를 말함인데 그 아이가 읽기를 '사우'라고 읽는 것을 봐서는 바하사 인도네시아 즉 인도네시아 식 알파벳으로 '사우'를 표기하려면 sau(싸우)나 cau(차우)가 되어서 '사우'라는 짜아짜아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가 없다는 그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모양새도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조그만 꼬마아이가 네모 난 칸에 한글글씨를 하나하나 똑똑



놀려서 쓰는 모습이 얼마나 정겹던지 마치 내 피붙이 같아 어깨를 꼭 싸안아주었다.

한글교사 아버지님은 어느새 한글예찬론자가 되어 있었다. 특히나 우리 한글의 요체인 홀소리 중에서 “점(●)과 一와 丨, 세 글자가 있기에 한글로 문자메시지 보내기가 쉽다”고 말하기에 내가 ●은 하늘(태양)을, 一는 땅(지평선)을, 丨는 사람을, 즉 천(天), 지(地), 인(人)을 나타내는 우리의 三才思想에서 그 글자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자 더욱더 놀라워하며 자기들도 그와 비슷한 부족전통사상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며 신통해 했다.

민간단체인 훈민정음학회에서 그동안 태국과 중국 등지의 문자가 없는 여러 부족들을 찾아 다니며 세계최고의 소리글인 우리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많은 공을 들인 결과 이와 같은 쾌거를 이루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더구나 훈민정음학회 이사장님과 원암재단 이사장님께서 재정을 지원해서 짜아짜아어의 한글교과서를 만들어주셨다고 하니 감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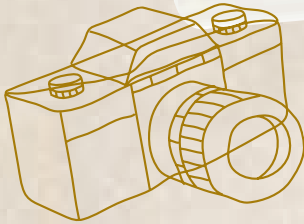
지금은 단순히 자기네 부족語를 한글로 표기할 뿐이지만 그곳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다른 이들도 자연 한글을 쓰다 보면 부수적으로 한국말을 쉽게 배우게 되리라 본다.

짜아짜아 족이 많이 살고 있는 바우바우시가 있는 부튼섬(Palau Buton)의 '부튼'은 일명 천연 아스팔트라고 하는 광물로서 석유를 포함한 바위돌이라 유가가 배럴당 100불 이상이 되면 석유를 추출해도 타산이 맞는다고 하며, 현재는 부튼을 잘게 부수어 도로에 깔고 열을 가해 마치 아스팔트처럼 쓰고 있었다.

또한 그 지역에는 '까유 자티'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티크나무가 많고 또한 주민들이 '쯔케'라고 하는 박하향료와 비슷한 정향나무열매를 재배하여 전매품으로 팔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수준은 타 부족에 비해 나은 편이었고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성품은 온순하고 매우 다정다감했다.

돌아오는 길에 부튼 섬과 배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무나(Palau Muna)섬의 라하에서 1박하며 때가 묻지 않은 순수의 비경에 잠시 여독을 풀었다.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섬의 풍광에 버금하는, 아니 발리섬이 화장을 한 여인이라고 치면 라하(Raha)의 비경은 마치 수줍은 촌색시의 순수한 매력 그 자체라고나 할까 혼자 보기에는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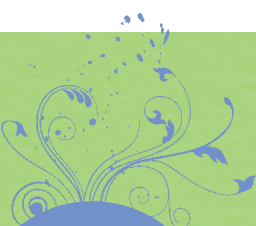
무나아까운 기가 막힌 경치였다.

호수처럼 잔잔하면서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깊은 바다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노닐고 그 바다를 지나 단 하나의 통로인 석회암에 뚫린 동굴을 빠져나가면 다시 두 번째의 바다가 신세계처럼 나타나고, 그 바다를 지나 다시 커다란 분재를 물 위에 띄워놓은 돌섬 사이를 자그마한 배로 빠져나가면 수평선이 바라보이는 세 번째 바다가 나타났는데 세상에 이런 수가 있나! 나룻배에서 내려서니 두 발이 하얀 산호가 부서져 된 모래바닥에 닿았다.

마치 요지경 속, 동화속의 바다를 건넌 것 같은 환상에 그만 넋을 잃을 정도였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생각하니 짜아짜아 부족이 한글을 배워서 우리말로 대화가 될 정도가 되면 부톤섬과 무나섬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짜아짜아 족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한 한국말을 배움으로서 그곳 젊은이들이 한국기업에 일을 하게 되고 또한 한국과 교류가 늘어나서 짜아짜아 사람들에게 문화나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인근의 타 부족들도 서로 다투어 가며 한글을 공식문자로 쓰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더욱더 그러한 일이 빨리 성취되었으면 싶었다.

권태하 서울문화 편집주간



문화원 이야기
서천동자북
문화역사마을

서천 동자북
문화 · 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 말하다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천 동자북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필자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31일 사업종료가 될 날 까지 본 사업을 지켜봐 왔으며 글을 통해 3년 10개월 동안 진행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선 동자북 마을은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인구는 120여명에 불과하고, 번듯한 한옥하나 없는 마을이다. 하드웨어 분야에서 보면 왜 동자북 마을이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에 선정된 이유가 뭘까? 의아해 할 정도 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보면 선정된 이유를 알게 된다. 우선 동자북의 북소리라는 백제부흥운동 관련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 아낙네들이 만든 한산모시와 모시짜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도 있다. 아울러 앓은뱅이 술이라고 불리는 한산소곡주가 내려오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무한히 발전이 기대되는 문화역사 자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소프트웨어로 본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어렵고 난감했다. 그래서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어떻게 하면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지 개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기본계획을 통해 나온 것은 한산소곡주는 계승을 통한 주세법으로 부터의 합법화와 양성화였으며, 모시는 굶기 정도가 매우 얇은 10승 이상 세모시 생산을 위한 과거방식을 도입한 지속적인 계승이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동안 주세법에 묶여 집집마다 몰래 빚은 가양소곡주를 양지를 끌어올리는 일은 순탄하지 않았다. 기존

업체는 이해관계로 이의제기 했다. 모시는 인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세모시를 생산할 수 없다는 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개념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협동성과 관심이 매우 낮았다. 그래서 서천문화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협동성과 관심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 방법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마을 대동제 부활을 통해 협력을 높이려 했고, 자주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추진경과를 알렸다. 맛 좋은 소곡주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험을 통해 노력도 했다.

또한 전문위원들의 열성으로 추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계속 추진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기간은 2년인데 시간이 거의 흘러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사업기간이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지만, 성과는 미비하고 마을, 지역언론, 중앙부처 여기저기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과가 별로 없다. 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는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갈등소요를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추진되고 나서 2008년에 오자 사업이 안정되고 사업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소곡주와 모시의 계승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시설인 문화역사계승시설 4동(건물면적 767.16㎡)과 주민복지와 민박수용을 위해 마을회관(건물면적 194.04㎡)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사업부지는 마을주민들이 소유한 공동 토지를 제공했다. 다른 지역은 토지 구입문제로 어려웠으나, 동자북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협력으로 토지를 제공받았다. 아울러 개별방문객 유치를 위해 개인가옥을 리모델링했다. 개인가옥 선정은 마을자치회의를 통해 선정했으며 민박에 선정된 가옥은 반드시 자부담을 포함시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시설공사 중에는 마을주민들에게 개방시켜 언제든지 시설공사를 관람 시켰다. 그리고 마을주민 1인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해 관리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자재 하나하나까지 이의제기해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준공 후에는 열심히 시공했다고 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가 되었다.

본 문화역사계승시설 운영은 마을법인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건물 소유는 마을회로 하여 취득된 재산은 협약서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했다.

드디어 7월 문화역사계승시설과 마을회관이 완공 되자. 방문객이 마을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대전에서 멀리서는 강릉, 고령에서도 찾아왔다. 언론에서도 마을소개와 더불어 홍보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문객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시설운영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유는 다들 잘 알지만 수익모델로의 역할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판단은 수익모델로 소곡주의 판매에 역점을 두고 시설 내에 현대적인 소곡주 생산 설비를 설치하여 차후 주류면허를 취득 후 판매를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드디어 10월 23일 길고긴 문화역사계승시설과 마을회관에 대하여 준공식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한산모시는 옛날방식으로 짠 세모시 2필을 확보했으며, 소곡주는 합법화와 양성화를 위해 농림수산물부에서 농민주 추천서를 받아 현재 국세청에 주류면허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서천군청에서 동자북 마을을 포함한 한산면 전체를 한산소곡주 특구로 지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후속으로 2010년 충남민속의 해를 통해 민속마을로 지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모두가 동자북 마을이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친다.

정찬영 서천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
이야기

2009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 평가워크숍

「2009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평가 워크숍이 11월 18일(수)-19일(목) 양일간 안동의 군자마을에서 개최되었다.

전통한옥촌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사업관계자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했던 이주여성 10명이 동참, '이주민 수다방' 등을 통해 이주민 생활의 실태를 알아보고,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에서의 생활문화체험을 통해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1. 사업평가

20개 지역의 사업 담당자들은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와 문화 이해 교육'이라는 동일한 주제 하에 1년간 각기 다른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된 이주민 사업의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 사업의 평가기관인 리서치 21의 신동호 소장은 사업의 총괄적인 평가 및 사례집 제작 방향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각 지역의 담당자들의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일 년 간의 사업을 정리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민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2. 이주민 수다방

'2009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에 참여했던 이주민 중 10명(강진, 평창, 연기, 남해 문화원)이 이번 워크숍에 동참했다. TV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처럼 이주여성들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 놓는 <이주민 수다방>에서는 이주여성들과 사례집 관계자들이 모여 이주 이전의 생활과 이주 후 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임신한 딸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함께 군자마을을 찾은 이옥걸(남해문화원)씨의 친정 어머니인 왕

수경(중국)씨는 중국어로 진행된 개별 인터뷰를 통해 한국문화 및 한국인과의 결혼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느낌과 생각을 말하며 워크숍 참여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주여성들의 생각과 생활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사회가 '우리 속의 그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주민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위해 이틀간 진행된 이주민 수다방 및 인터뷰는 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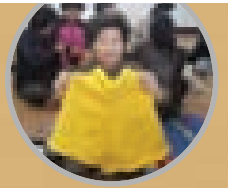
3. 한옥체험

광산김씨 예안파의 거주지가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가옥과 누정을 옮겨 만든 군자마을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을 통해 숙박 및 세미나 시설이 완비된 전통한옥촌이다.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은 군자고와 및 450년 된 한옥인 후조당과 사랑채, 읍청정 등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전통한옥을 체험해 보고 안동문화원 김준식 원장님(광산김씨 예안파 종손)의 종가(宗家) 이야기와 군자마을 김방식 관장님의 한옥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마을을 돌아보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고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 담당자





문화원 이야기

어르신문화학교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한 해를 돌아보며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가 개교한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시범사업이라는 명찰을 달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더니 어느새 훌쩍 성장하여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이라는 커다란 후원자를 등에 업고 기세도 등등하게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평가라던가 진단이라던가 하는 거창한 수식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관망자에서 → 관계자로, 관계자에서 → 실무자로, 실무자에서 → 담당자로 이 사업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몸소 체험한 본인의 소고를 적어보고자 한다.



재원의 전환, 인식의 확립

앞서 말했듯이 2005년 복권기금으로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이 오늘날 이토록 당당한 기세로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그간 참여했던 순수의 전문가, 열정의 담당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옹기종기 모여 주름살 한 움큼씩 세상에 내어놓고 삶의 전환점을 출발점으로 돌려놓은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 덕에 '어르신문화학교'는 복권기금이라는 한시적 재원에서 2009년 국고보조금¹⁾으로 전환 더욱 많은 혜택과 수혜를 줄 수 있는 든든한 사업이 되었다. 국고보조금으로의 재원 전환은 지속적인 전략 수립과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매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정책적 관점의 심안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기존의 기금 사용에 있어서 허용되던 것들도 통제될 수 있으며, 이는 최전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문화원 관계자들에게는 더 많은 고민과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로 기존에 사용되던 식비 또는 다과비의 인정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자산성 물품 구입 등에 관한 규제나 제약이 심해진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효

율적인 사업추진에 적절한 장애나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고의 근원이 국민의 세금이고, 세금은 곧 우리의 돈이라는 생각으로 진중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에 힘을 써야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 씀드리고 싶다.

위와 같이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듯 많은 관심은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재원의 변화가 주는 압박이 기존의 능동적인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합회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²⁾을 유지하여 지방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을 줄 생각이다. 따라서 연합회는 도농간 불균형은 물론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과 소리에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활로를 열어둘 예정이다.

도약이 주는 도전의 미학

올해는 '어르신문화학교'는 물론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만 천하에 드높인 한 해였다. 기존에 추진되던 '실버문화축제'의 성과를 이어받아 '나이 없는 날'을 기획,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은 아마도 올 한해 '어르신문화학교'가 거둔 최고의 성과일 것이다. '나이 없는 날'은 젊음의 거리 흥대를 무대로 노인과 젊음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적 파장을 일궈내겠다는 획기적인 생각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매년 9월 9일³⁾을 '나이 없는 날'로 정하고 일 년 중 단 하루만큼은 모두가 하나 되어 소통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의 문화활동이 단순히 소외된 세대의 구제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합일의 창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09년 9월 9일 공교롭게도 '연월일' 이 동수 배치되어 '999' 연속 배치됨으로써 '청년, 장년, 노년'의 3세대에 대한 공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늘이 점지해준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가치와 의미는 방송 3사는 물론 각종 라디오와 신문 등 언론매체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아내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기획가와 활동가들의 노고가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또한 이 모든 자원과 소스를 둘러메고 홀로 언론사의 문을 두드려 그들을 유도해낸 실무자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도약은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다. 어르신들의 두 눈동자가 그랬고, 그들의 몸짓이 그랬다. 도전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뛰고 더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 도약의 다른 이름으로 '어르신문화학교'의 또다른 도전으로 '나이없는 날'은 계속 뛰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장점과 단점 때로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2008년에는 100개 문화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37개 문화원으로 무려 37개 문화원을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그 중 20개 문화원을 별도로 선별(지속가능성, 지역특색, 운영역량, 추진경험, 기타) 전략육성사업으로 칭하고 보조금에 대한 차등지원을 하였으며, 나머지 117개 문화원을 지역특성형으로 분류 평균(1000만원)적 예산지원을 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의 성과 중 전략적 혹은 제도적 지원과 협력의 부족으로 인해 부각되지 못했던 사업을 찾

아내고, 다수 문화원의 균형적 성장까지 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년도 어르신문화학교 전략육성사업 중 예산지원의 차등에 따른 특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문화원 또는 성과의 계량적 측면을 가시적으로 축출한 문화원에 대한 주관적 분석을 해본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지원금의 편차에 따라 부여되는 미션의 가중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업의 대중적 성향이 짙고 전략적 지원 체계의 선행연구가 부재하였다는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어진다. 오히려 지역특성형 사업의 경우 다수의 문화원이 오랜 경력을 토대로 적지만 알찬 예산계획에 따라 목표치에 근접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전략육성형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다소 기대치에 크게 상응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은 전략적인 계획이 가야할 방향 추진체계 성과에 대한 밑그림을 사전 제시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을 비롯하여 국고보조금 전환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한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장점은 아는 것과 알게 된 것이며, 단점은 못하는 것이 아닌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향후 '전략육성사업 연구과제물'과 최종평가 자료를 토대로 중장기 미션과 실천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제고한다면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는 해마다 목표치에 더욱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을 마무리 하며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10년으로 본다고 하면 전환점을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르신문화학교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국정과제에 들어있을 만큼 그 영향과 가치는 실로 거대해졌고 나날이 늘어가는 수요와 고품화 사회 실질적 대안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섬세하고 예리한 실천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0년 어르신문화학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획일화된 지원 방식을 탈피 사업 주제별 역량과 경험 그리고 특색과 개성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사업유형의 다원화를 통해 전국 지방곡곡 모든 노인이 문화생산자에서 문화소비자로 그리고 또 다른 문화의 창조자로 문화예술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차원적인 사업유형과 지원 구조를 개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선택'이란 통상적인 우수성을 인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각각의 특성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며, 집중이란 이렇게 다수주체에 대한 개별특성의 성장을 집중하는데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끝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지어가는 이 시기가 위에 말한 모든 것들에 바탕이 되는 멋진 끝맺음의 필요충분조건임을 감안하여 남은 사업의 마무리와 정리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문화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대균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임 전화 | 02-704-4332

1) 어르신문화학교 재원변화 및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액 (재원)	2억4천 (복권기금)	10억 (좌동)	10억 (좌동)	15억 (좌동)	19억 (국고보조금)

- 2) 팔 달는 데까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 3) 숫자 '9'는 양수,영원,지속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9월9일을 가장 길한 날로 여기고 매년 9월 9일을 나이없는 날로 선포함



2009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

구분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1	서울	서울중구	서울 중구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2		광진	친환경-미쁜 천연누와 화장품 만들기
3		동대문	동대문 실버 중창단-왕언니 클럽
4		은평	은평 실버 민요 합창단
5		마포	실버VJ미디어 영상학교 3기 운영
6		강서	동화책 할아버지/할머니
7		영등포	해아 숫아라, 2009 희망의 해아 숫아라
8		송파	실버 카메라 - 세상에 말을 걸다!
9	부산	북구낙동	강따라 노래따라 "낙동강 노래를 부르는 어르신들"
10		금정	덕종이 인형
11		부산강서	울어라 색소폰아
12		연제	희망의 은빛 예술단
13		기장	기장실버 은빛 천연염색반
14		부산진	꿈을 빛는 도자기세상
15		부산남구	실버 통기타 앙상블
16	대구	동구팔공	청춘(靑春)을 돌려다오
17		서구	천왕메기야, 내 청춘을 돌려다오
18		달성	노래, 민요 수업
19	인천	부평	실버들의 빛 그림자 인형극-은빛여울
20		강화	생태문화체험 실버 리더 양성과정
21	광주	동구	광주실버악단 단원양성 및 공연기획
22		서구	3대가 함께 하는 어르신 배비장
23		남구	한지사랑방에 마실 간 이야기
24		북구	은빛소리에 울리는 남도바이어스
25		광산	할아버지(할머니)가 들려주는 광산고를 옛이야기 교실
26	대전	동구	동구에 오면 전통문화 '한 스타일'이 보여요
27		중구	여섯줄 통기타와 은빛 하모니카 연주여행
28		서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신비한 꽃누르미'
29		유성	달려라 실버포장마차
30		대덕	연꽃마을 연츨꽃 어르신 "소망등"으로 빛나다
31	울산	중구	울산 매곡악 풍물단 양성
32		남구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공예 희망제작소
33		북구	울산신부리놀이 실버단원 양성
34	경기	의정부	Silver Of Rock 4 악극-음악으로 인생을 말하다.
35		인양	어린이 전통문화 실버 보조강사 양성
36		부천	"따라릉" 실버동요합창단
37		광명	광명의 오래된 미래
38		평택	명장의 손으로 거둔다는 '숫대와 장승'
39		동두천	노끈으로 엮는 공예품
40		안산	아코디언으로 수놓는 은빛추억
41		과천	은빛사랑매듭
42		구리	전래놀이연구회
43		시흥	시흥 그린밴드
44		군포	명사초청 '전설의 군포' 1탄 '김투봉명당싸움' 단편영화만들기
45		의왕	의왕 은빛 아코디언 연주단
46		하남	사랑의 악수 봉사대
47		용인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전통 한시(漢詩)교실
48		이천	도자 명장과 함께 실버도예가 양성
49		광주	너른고를 실버와 함께하는 "꼭 알아야 할 전통의례"
50		양주	찾아가는 양주의 옛소리



51		화성	청 희 문을 만들거는 실버 무지개극단
52		포천	추억의 실버 퓨전 예술단
53		가평	새싹 실버한국무용
54		양평	문화재 배아미 비누공방
55	강원	춘천	집으로 엮어가는 실버문화
56		원주	실버세대는 꽃향기를 싣고
57		강릉	하슬라 챔버오케스트라
58		동해	지역실버가 기획하는 2009 동해천년학체협축제
59		속초	실버예술단 아바이,아미의 가아금 연주단 양성
60		홍천	어르신 실버 인형극단 양성
61		횡성	사랑을 실은 우리춤 '장수춤, 문화봉사단 양성
62		평창	평창아라리 보존·전승(근로대 딱딱이 인간문화제)
63		철원	철원 현무암 보존·전승
64		양구	실버 예술단 양성
65		양양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언어 이야기
66	충북	청주	전통 장문화 알리미 양성교육
67		청원	명품세상-청원 갖바치
68		보은	동화로 전승되는 우리이야기
69		진천	검은 도화지에 무지개
70		증평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아생초 이야기
71	충남	공주	실버문화 공연단 <노동령 발두령> 운영
72		대천	풍수지리 수맥 지도자반(고급과정)
73		운양	지푸라기로 엮은 실버세상
74		서산	실버 전통무용단
75		논산	전통 색한지에 담긴 실버공예가의 꿈
76		부여	전통민속놀이 지도자 양성 교육
77		태안	태안문화원 실버 미술단
78		당진	언제나 청춘 '늘 푸른 악단'
79		아우내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80	전북	전주	은빛 명창들의 단가 맛들이기
81		군산	얼썬 은빛 우리 무용
82		익산	내 손안의 작은세상
83		정읍	샘골 은빛종합연예단원 양성 및 연예단 운영
84		남원	남원 실버음악단 '아름다운 세상' 비전형성사업
85		김제	미술과 함께 신나는 인생 만들기
86		고창	우리가락 얼썬 얼썬!
87		부안	할머니 반질고리
88	전남	목포	실버남도소리 공연단 양성
89		여수	극단 "여수의 향기"
90		나주	재미난 이야기로 만드는 토우 세상
91		담양	우도농악 전승 및 청죽골 실버 풍물단 (구정놀이 재현)
92		고흥	고흥문굿 전승 실버풍물단
93		보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우리 춤 공연단 구성
94		화순	천상의 소리 실버 오키리나 앙상블
95		장흥	정남진 실버민요합창단 육성
96		강진	"풍물굿"강진인의 궁지로 우리문화 꽃피우자
97		해남	'3색, 실버놀이단'
98		영암	풍수지리 실버문화 만들기
99		함평	함평천지 예교 도예가
100		영광	청충동당 굴비골 놀보네 대박났네 "아쌤님 복들어가요 福"
101		완도	섬 사랑 실버 신명 패
102		진도	옥주골 공예교실
103		신안	"신안 섬드리 민요합창단" 육성사업
104	경북	포항	두드려라 청춘이 열린다! 나타
105		경주	"사진으로 담아내는 우리고장 이야기"
106		김천	잊혀진 김천상여소리 여행

107		안동	전통문화를 이끄는 실버들의 민속놀이도구 만들기
108		영천	별빛 촌 실버 풍선 교실
109		문경	문경소리공연단 운영
110		경산	생각대로 만드는 송림 한지 세상
111		군위	사랑의 지팡이 만들기
112		의성	할머니들의 가락장구 공연단
113		영덕	동해 어부들의 소리' 재연
114		청도	토속민요 찾아 즐기는 소리공연장
115		고령	기맛고 실버 가아금 연주단
116		칠곡	아리랑 장수춤 제조단 양성교육
117		예천	예천의 소리를 찾아서
118		봉화	봉화 12차 실버농악단
119		울진	울진의 전래민요 전승단
120	경남	창원	실내민테레어 공예제작 교실
121		마산	마산문화 지킴이 실버 영상제작단 "쇼를 담고 추억을담는 실버들"
122		진주	"창작뮤지컬, '충절의 고장 진주라 천리길'"
123		진해	"창작뮤지컬, '소중한 나의 몸 3' - 이 씨이 노란 녀석아!
124		통영	통영 나전칠기 제작과정(칠과 자개와 함께하는 통영 실버)
125		사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에 간 까닭
126		김해	김해 이바구 연주단
127		밀양	우리소리 우리 몸짓
128		거제	섬마을 실버 한국무용단의 사랑의 몸짓
129		양산	제2기 양산실버반키(VANKY)해설시양성
130		의령	짚풀로 건전한 공예품 생산
131		함안	전통문화 지킴이 함안 화천농악단
132		남해	동고동락을 외치다
133		함양	함양 할매들의 솜씨방
134		거창	실버청춘연극단 양성 및 공연
135		합천	대아산 실버 농악단 양성
136	제주	제주	전통 제주 짓갈류 만들기 체험 및 교육
137		서귀포	전통문화체험 짚풀세상으로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실적

▶ 연도별 지원 현황

구분	프로그램수 (개)	참여자수 (명)	연인원 (명)
2005년	10	364	18,200
2006년	51	1,723	103,380
2007년	76	2,500	167,345
2008년	100	3,500	198,721
2009년	137	4,700	245,676

▶ 09년도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 (137개 프로그램)

공연형 프로그램 | 77개 문화원
제작체험특색형 프로그램 | 34개 문화원
특색 및 복합형 프로그램 | 26개 문화원

▶ 각 프로그램별 지원 사항

구분	지방문화원	평생학습관·노인복지관 등
프로그램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	노인복지대학·노인건강대학 등
특성	교육 → 사회참여·활동 (일자리 창출) 지역전통문화 보존·계승 생산소비형 (소비자 - 매개자 - 생산자)	교육 (건강·노래교실, 문화강좌 등) → 발표 1차 교육으로 종료 수혜형 (소비자)

문화원 탐방

문화 거인의
꿈을 품은 문화원
대구동구팔공문화원

문화원이 우리 동네 있던가, 하는
의문을 가끔 갖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또 여기엔 없겠지 하고
찾아보면 구석구석 문화원이 많기도 하다.
대구시에만도 8개의 문화원이 있다.
이른 추위가 닥친 늦가을,
대구의 동구팔공문화원을 찾았다.





좌측부터 권빛나 간사, 김사열 원장, 강병희 국장

가을학기 수합성 모임
문화예술 마카데미

문화예술 마카데미
수합성 모임

이민학이제문공육문아이애공육
대상선



대구 동구의 문화보물섬 동구팔공문화원

동대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남짓 가니 백안삼거리가 나온다. 한가한 풍경에는 채 마르지 않은 붉고 노란 낙엽이나 몸을 드러낸 나무가 거리를 채운다. 무심히 지나치면 모르고 지나갈 작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초등학교의 담장, 그리고 곧 동구팔공문화원이다. 그다지 큰 건물은 아니지만 길의 정면에 있어 눈에 띈다. 앞마당에 세워진 팔공역사대장군, 팔공문화여장군이 손님을 맞는다. 쌀쌀함에 몸이 움츠러들지만 2층에서 들려오는 장구소리에 금방 흥이 난다.

동구팔공문화원의 1년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숨이 가쁘다. 연중 사업인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민인 1기 문화예술 예능 보유를 장려하여 문화 창조자로 지역민을 양성하기 위해 계절별로 연4회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약 400여명 수강하고 있는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요가, 천연염색, 목요도예, 서양화, 사물풍물, 아코디언, 규방공예, 다도, 단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마을에서 사랑받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방공공사업-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은 올해 4월부터 실시해 동구팔공문화원 2층 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구보건소가 주최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무료 한방진료 시 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하여 매월 50-60여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결혼 이민여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한다. 한국어 수준 단계별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답사 삼국유사의 원류를 찾아서'와 '향토사 대중화 사업(한국전통문양 예술학교 - 천년의 역사속으로)' 아코디언 연주를 통한 어르신들의 연주단인 '어르신문화학교 - 청춘을 돌려다오' '찾아가는 음악회' '향토사 자료집 발간 사



김사열 동구팔공문화원장





대구동구팔공문화원

업 문화예술아카데미의 1년 총결산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회원전 - 예술빛 물드는 자리' 까지 알알이 여문 알밤 같다.

대구의 생태적 자원 활용 계획

숨 가쁜 1년 행사만 해도 눈코 뜰 새 없는데 김사열 동구팔공 문화원장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고 있다. 특히 대구의 동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 아무래도 층위에 따른 아이템을 제시하는 것도 문화원의 몫인 셈. 김사열 원장은 그의 전공이 생명공학인 만큼(경북대 생명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대구의 생태에 큰 관심을 보인다.

“동구팔공 지역에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좀 있어요. 팔공산과 금오강의 안심습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습지 같은 경우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곧 큰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축제를 하게 된다면 이런 배경으로 얼마든지 풍부한 아이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역의 축제가 이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생활과 연계되어 지역민들의 경제나 생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김사열 원장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획자의 몫일 뿐 아니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터. 문화원은 매개자로서 선순환의 구

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생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연계가 되어 그것이 영상이 되고 책이 되고 이야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원 사업 위주로 했는데 이제 동구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어우를 차레기도 합니다. 노인층과 주부층은 교류가 많이 있는데 젊은층은 잡지 못했어. 젊은이, 어린이가 함께 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김사열 원장. 그의 젊은 패기가 앞으로 동구팔공문화원의 뱃머리를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 지 두고 볼 일이다. “장기적으로 욕심내어 본다면 동구가 지역이 넓어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본부로 두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분점을 두어 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주목해주십시오.” 지난 일을 되뇌거나 자랑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미래를 담보로 이렇게 자신만만한 문화원이 몇이나 될까. 그들 마음의 큰 꿈을 감히 짐작이나마 해보면서 지켜보는 일만이 남았다. 김사열과(원장), 강병희(국장), 권빛나(간사), 대구의 동구팔공문화원을.

문화돌러보기

북촌생활사박물관

잘 삶은 콩 싸매어
청국장 띄우던
어머니가 있던 자리

딱 100년.

1909년과 2009년의 생활상을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너무나 분명해진다.

복식, 음식, 주거환경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려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이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100년을 기억하며

간직한 공간이 있다.

서울 100년의 모습의 조각이 남은 곳,

북촌 생활사 박물관의 대문을

두드려본다.









감흥이 없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박물관이 훨씬 살아있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꾸며두었어요. 북촌의 가정집에서 하나둘 모은 것이라 물건 모두의 이야기가 있지요. 짧지만 하나하나 그 사연들도 적어두었습니다.”

북촌은 2000년대 초 개발에 밀려 제법 많은 집들이 대폭적인 수리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집밖으로 나온 물건들은 영락없이 고물이나 쓰레기 신세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 보물들이 길거리에 내얹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이 관장은 하나둘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박물관은 그렇게 시작된다. 열심히 발품 팔고 주변의 도움 받고 하여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돌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계동길에서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무심히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아까워 모으기 시작했지요. 자본이 없으니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꾸미지는 못했어요. 버려진 물건을 오브제로 활용해 작품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골목 가이드도 해주었어요. 워낙에 이 동네가 좋아했기 때문에 골목골목 속속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소개로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죠.”

예전의 풍경이 지금도 계속되는 자리

버려지는 물건들이 그녀의 눈에는 보물로, 오브제로, 전시품으로 새롭게 태어난 셈이다. 쉽게 준비했다고 말하는 그녀지만 집안



을 살펴보면 무엇 하나 그냥 놓아둔 게 없다. 큰 창이 있는 방의 탁자는 나무의 모양대로 누워있는데 그 위에는 고삿고삿 놓인 다듬이들, 다리미, 숯불이 놓여있다. 서랍장 위로 놓인 복신한 이불은 알록달록 색이 곱다. 작은 벽에 걸린 거울이며, 광주리에 오막조막 모여 있는 모과하며 서로 섞여 그냥 한 집안에서 두고두고 모은 물건 같다.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건 지금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호미면 호미, 맷돌이면 맷돌, 전부 다 직접 사용해본다.

“저희는 체험학습을 많이 해요. 이번에 한 체험학습은 ‘궁궐의 하루’ 라는 건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궁궐처럼 집안일을 체험해보는 거죠. 빨래를 해도 옛날식으로 숯을 풀어 빨고 물통이도 이어보고 하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추워서 색점토로 예전 물건들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체험하며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녀 덕에 이곳은 쓸수록 빛이 나던 우리 어머니들의 마루처럼, 그릇처럼, 마당처럼 빛이 난다.

그녀의 말처럼 궁핍한 시절 조약하게 만들어졌을지언정 그것은 우리네 지나온 삶의 진솔한 증거이자 오롯한 추억이다. 우리의 어머니가 있던 풍경. 이불 훌쩍을 뜯어 말려 말숙하게 숨을 넣어 개켜두고, 저녁이면 막걸리 넣은 빵을 찌주던 어머니. 봄에는 장을 담가 장독을 채우고 산속을 뜯어 찌고 남은 것은 얼려두어 여름내 찌주던, 도토리 주워 말려 또 빵아 몇 시간을 저어가며 목을 सू어주던, 그 겨울 온돌방 아랫목에 잘 삶은 콩을 싸매어 청국장을 띄우던 어머니가 살아있는 곳이다. 사랑사랑 시간의 징검다리 건너 그 자리 훌쩍볼 요량이면 긴 골목을 오르기를 권한다. 늦봄이든 한겨울이든 반가운 이 자리로.

제14회 농업인의 날 기념 2009 전국 농업인 풍물경연대회

뱅뱅 돌아라 풍물의 열기 속으로



제14회 농업인의 날 기념 '2009 전국농업인풍물경연대회'가 지난 11월 10일 수원 민석공원 내 제2아외음악당에서 열렸다.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농업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농업인들의 삶속에 녹아있는 풍물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대동정신을 고취시키며 농업인들에게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고된 삶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화합을 유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였으며 한국마사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였다.

참가자격의 취지를 살려 7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별로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자체경선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참가팀 선정 및 추천했다. 구름이 많고 바람이 불어 쌀쌀한 가운데에서도 수원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과 박수로 내내 뜨거운 자리였다. 경연대회라기 보다는 함께 즐기는 자리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이 대회를 더욱 빛냈다.

이번 대회 대상(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은 제주문화원의 부속 구좌읍민속보존회의 제주풍년기원에 돌아갔다. 금상(농촌진흥청장상)에는 경북 봉화문화원 부속 봉화문화원고사미농악단의 봉화농악, 은상(농촌진흥청장상)에는 충남 서산문화원 부속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연암농악단의 서산뽕가리대 농악놀이, 동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에는 경기 동두천문화원 부속 동두내 옛소리 보존회 두렛소리가 차지했다.

축하공연으로 정명자 무용단의 '기방춤' 과 '장고춤' 강은경 & 광개토태악팀의 '가야금병창을 위한 타악협주곡' 광개토 사물패의 '판굿' 이 관객들의 시선을 잡았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일과 삶이 결합된 풍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각 지역의 자연 환경, 풍습, 역사 등을 보존하고 재현하는 가운데 애항심을 고취하며 사라져가는 농촌문화를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로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할 행사가 될 것임을 기대한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일과 삶이 결합된 품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각 지역의 자연 환경, 풍습, 역사 등을
보전하고 재현하는 가운데 애향심을 고취하며
사라져가는 농촌문화를 되살리는
축매제 역할로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할 행사가 될 것임을 기대한다.



시상중인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 심사결과

시상	성격	상금 (단위:천원)	지역	문화원	참가팀명 / 작품명
대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7,000	제주	제주	구좌읍민속보존회 / 제주풍년기원
금상	농촌진흥청장상	5,000	경북	봉화	봉화문화원고사리농악단 / 봉화농악
은상	국악방송 이사장상	4,000	충남	서산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연암농악단 / 서산뽕가릿대 농악놀이
동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3,000	경기	동두천	동두내 옛소리 보존회 / 두렛소리

▶ 2009 전국 농업인 풍물경연대회 참가팀

순서	지역	문화원	참가팀명 / 작품명	대표자명	참가인원
1	경기	동두천	동두내 옛소리 보존회 / 두렛소리	이재혁	30
2	충북	제천	제천풍물예술단 / 다스름, 하늘땅 소리굿, 비상	최준일	10
3	제주	제주	구좌읍민속보존회 / 제주풍년기원	김규천	30
4	충남	서산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연암농악단 / 서산뽕가릿대 농악놀이	최희수	33
5	강원	춘천	춘천춘추농악단 / 옷다리농악	춘천문화원	31
6	전북	군산	고삼매농악 한마당 / 호남우도농악	채수학	25
7	경북	봉화	봉화문화원고사리농악단 / 봉화농악	최병호	40
8	경남	함안	함안문화원 / 함안하천농악	조효래	32
9	전남	영암	영암문화원 풍물패 / 농악 '판굿'	신태균	36

한국만화 100주년을 기리며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책 수집

나의

편력기 3



언제부터 만화가 시작되었을까?

만화는 고대의 상형문자 및 무덤의 벽화 같은 것이 제작 될 때부터 시작 되었다고들 한다. 그 이유로는 초기 피라미드 내부와 후기 룩 소르 신전 등에 그려진 새와 동물들의 그림들이 만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곁을 지켜온 만화는 이제 스토리 만화뿐 아니라 캐리커처(Caricature), 풍자만화(Cartoon), 코믹스(Comics)를 넘어 애니메이션(Animation)에 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만화라는 용어 하나로 모든 만화를 통칭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근대 만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국만화는 나라의 주권을 일본한테 넘겨주려는 어려운 시기에 계몽과 풍자에서 시작해 감동으로 사회와 국민과 관계를 맺어 가면서 태동 되었다.

이러한 한국만화의 탄생을 이야기 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이도영이다.

한국만화의 원조로 김홍도 등을 꼽는 이들도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한국만화는 1909년 6월2일자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의 삽화를 꼽기 때문이다.

한국의 첫 만화가 이도영은 어린 나이에 애국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대한민보>의 만평을 통해서 이른바 개화를 역설하는 한편

선부른 개화의 폐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 애국자였다.

그의 만평작업은 최초의 만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았다.

금년 들어 한국만화가 탄생한지 100년이 되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도영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진행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만화는 훌륭한 탈출구였다.
 보릿고개로 대표되는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는
 만화가 주는 상상과 꿈의 세계를 통해 세상을 향한 창을
 열기도 했다. 특히 1950년대 후반 등장한 만화방은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대표적 오락이자 문화생활 터로 자리 잡았다.
 나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만화방을 다니기 시작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40~50분 거리였는데
 학교가 끝나고 오다가 만화방을 들렀다.
 그 당시 내가 보았던 만화로는
 김경언의 <칠성이와 깨막이>, <의사 까불이>,
 <모래알전우> 등과 산호의 <라이파이> 등 이었다.
 만화방의 환경은 열악하게 짝이 없었다.
 침침한 분위기에 덜렁 긴 나무의자만 늘어놓고 추운 겨울에는
 연탄난로 아니면 톱밥난로를 피워 놓은 것이 고작이었다.
 만화방 주인은 과자, 왕시탕을 비롯해 별시탕이든 건빵,
 오징어, 군고구마 등 군것질 할 것과 뽑기 등으로
 더 한층 어린 학생들을 만화방으로 유혹하였다.
 군것질 하면서 만화 보는 재미는 요새 시쳇말로
 안 해 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정도였다.
 돈만 생기면 다음편이 보고 싶고 또 군것질도 하고 싶어
 만화방으로 달려 가곤 했다.
 이처럼 만화방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 온상이었다.
 이는 만화방이 불쌍스러운 장소로 비쳐지는 결과를 낳았다.
 60년대 중반 어느 어린이가 잡지에 만화를 얼마나 보고 있나 라는
 설문을 조사해 실은 것이 있는데 놀랍게도
 한반에 70% 이상의 아이들이 꾸준히 만화를 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기 있는 만화가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사회의 악 중 하나라고 규정짓고 사전검열과
 까다로운 심의규정 등으로 철폐가 가해지고 급기야는
 작품의 창작활동에 찬물을 끼어 부었고,

또한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만화 안보기 운동, 만화 불태우기
 행사를 벌이는 등 만화를 마음껏 펼쳐 놓고 읽지도 못하고
 또 책꽂이에 꽂아 간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시기가 닥쳐왔다.
 만화책의 수난기였다. 만화는 책과 달리 회화적이고
 오락적 요소 때문에 책으로 대접을 못 받아 왔다.
 그래서 헌책방에서도 취급을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면 버리기 일수였다.
 그리고 종이가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변소(화장실)에
 휴지 대용이나 아궁이 땀감으로 쓰여 대부분의
 만화가 없어졌다. 특히 40~50년대의 초기 만화는
 더욱 그렇다. 나의 경우에는 지금은 만화를 수집하지만
 그 수집역사는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그러나 40~50년대 희귀 만화를 좀 갖고 있다.
 그것은 내가 책 수집을 하기 시작한 초기 때
 인천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글천지서원>이라는
 헌책방이 있었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서
 가장 연로 하신분이고 다른 서점과 달리
 고서점이라 나 같은 어린 풋내기가 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어르신네가 신경질적이고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가기가 꺼리는 집이었다.
 그래도 간혹 들르곤 했다. 어느날 책방 구석에 수북이 쌓인
 먼지 속에 한 묶음의 책이 있어 들여보니 만화였다.
 종이나 색도가 조악하게 짝이 없을뿐더러 상태도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안 좋고 해서 망설이다가
 그 묶음 중에 그래도 상태가 나은 것만 골라 샀다.
 그리고는 수십 년을 처박아 놓았다.
 최근 영상산업이 활성화 되고 만화가 문화 콘텐츠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만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금년에 그 문치를 꺼내 정리해 보니 40권정도 되었다.
 48년 발행 2권, 51년 8권, 52년 18권, 53년 9권, 54년 2권,
 55년 발행 1권 이었다.
 이중 우리나라 근대 만화를 이끌었던 선구자적 만화가의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만화를
 작가의 만화세계와 함께 소개 하고자 한다.

[1]. 삽화 만화의 선구자 정현웅

만화가 보다는 삽화가 · 서양화가로 이름이 높은 정현웅은 1911년 생으로 해방 후 조선미술가동맹에서 활약하며 정치적 색을 띄우기 시작했고 서울신문사에서 잡지 <신천지>의 편집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6.25 동란 중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미술가로 활동했다. 소설 표지 장정의 대가로 꼽히는 김환기와 함께 삽화가로 이름 날린 정현웅은 만화는 주로 해방 후에 시작 하였으며, 한국만화의 선도자 김용환과 쌍벽을 이루며 많은 작품을 내 놓았다. 단행본으로 <아리바바와 공쥐팔쥐>, <노지심>, <악성 베토벤> 등이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노지심>은 정현웅의 1948년 작품으로 수호지의 그림 이야기 이다.



2]. 만화계의 의리 사나이 박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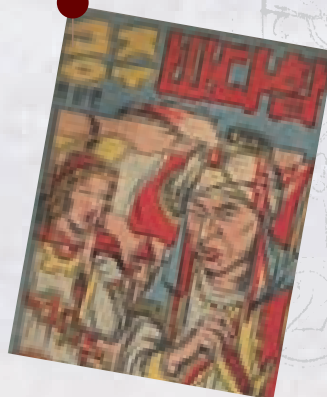
“나 어릴 적 아버지의 작업실 풍경을 한 번 떠올려 본다. 방 가운데 난로가 있고 겨울이면 난로 위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만화를 그리는 아버지, 그 한쪽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 기다란 의자에 앉아 소설책을 읽는 할머니.....”

이것은 탤런트 박원숙이 아버지를 회상하는 글의 일부분이다. 탤런트 박원숙의 아버지인 박광현은 박기당, 김종래와 더불어 우리 극화 만화의 선두주자로 지칭되고 있는데 그림솜씨 뿐만 아니라, 그의 타고난 한량 성격과 남자다운 패기는 만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이다. 가랑잎에 불붙는 듯한 급한 성질은 그림 그릴 때만은 정성을 다해 밤을 세우기 일수였다.

데생은 그야말로 지우고 또 지우고 완벽을 다해 정성을 드렸고 다른 사람 누구하나 대신해 펜과 붓을 댈 수 없게 했으며 문하생도 그의 작품을 손댈 수 없었다.

작품은 다작을 안하고 하나만 오래하니 독자에게 인기가 점차 멀어졌지만 정성 드린 한 작품 한 작품이 우리 만화사에서는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첫 작품은 <인순이와 공일탄>으로 46년에 그린 작품이었는데 출간되지 못했고 <정의의 쌍칼>, <푸른 망토> 등이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그림자 없는 복수>, <징기스칸>, <최후의 밀사>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공주바다함>은 박광현의 1952년 작품으로 역적 부리나가 왕비 등을 옥에 가두고 공주 바다함을 없애려는데 복면의 소년무사가 온갖 역경을 헤쳐 나가면서 이들과 싸움 끝에 공주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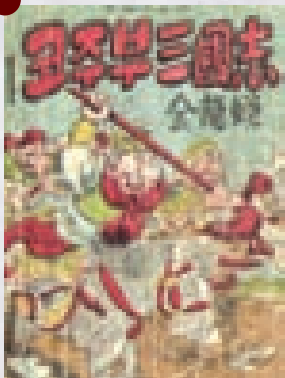


[3]. 한국 근대 만화의 개척자 김용환

코주부 캐릭터로 유명한 김용환은 그의 동생 김의환과 함께 그리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만화사에서 만화를 대중에게로 한 차원 끌어올린 만화가 중의 한사람이다. 어느 장르든 개척기에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은 인구에 회자되기 마련인데, 만화라는 장르는 대개 독자들에게 쉽게 읽히면서도 쉽게 잊혀져온 장르였다. 그런 만큼 김용환에 대한 평가는 더욱 비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용환의 대표적인 캐릭터 코주부가 만들어진 것은 1942년이다. 당시 동경에는 한국에서 온 부랑 노무자들이 일이 없으면 술, 노름 등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이를 본 김용환은 그들에 대한 계몽의 필요성을 느껴 주간지인 타블로이드판 <동경 조선민보>에 토속적인 인물 코주부를 게재한 것이 코주부가 탄생한 배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9월6일 창간된 영자신문 <서울타임지>에 시사 연재만화로 시작 되었으며 한국전쟁 중 창작된 <코주부탐정>과 <코주부삼국지> 등의 어린이 만화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오늘날 회자되는 만화캐릭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캐릭터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코주부삼국지>는 김용환의 1953년 작품으로 그가 이 만화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유명한 중국소설을 만화로 꾸며서 <코주부삼국지>라 하고 학원잡지 창간호부터 만 일 년 동안 잡지에 연재한 것을 모아 책을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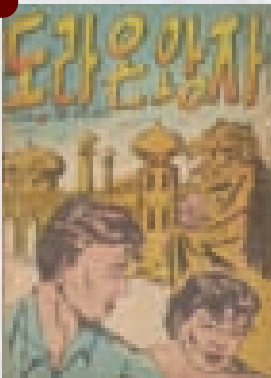
[4]. <자유의 벼> 표지를 그린 김의환

김의환은 코주부 김용환의 동생으로 도쿄 태평양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형 김용환과는 아주 색다른 필치로 그림을 그린다는 만화가이면서도 삽화가? 풍속화가로 이름이 드높았다. 만화로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하면 남아 있는 작품이 거의 없어 아쉬우며 <자유의 벼>에 그린 그의 그림은 농촌의 삶의 모습을 순박하게 재현해 당시의 시대적 향수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수작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손오공>은 김의환의 1951년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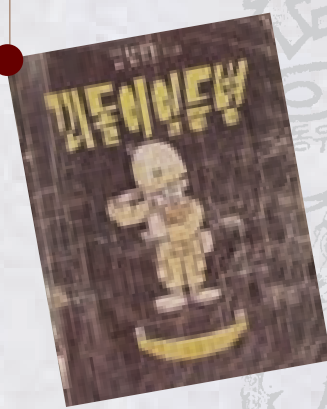
[5. 어린이에게 꿈과 동심을 심어준 명랑만화의 대가 김경언

오육십년대 전쟁의 아픔과 삶의 궁핍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런 아픔과 슬픔을 잊게 해준 만화 동산의 꽃 봉우리가 김경언이다. 그는 함남출신으로 8.15해방이 되고 월남을 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 같은 대학 재학 중인 신동헌을 알게 된 것이 만화가의 길로 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다. 어린이에 맞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의 위치에서 만화를 그린 김경언은 항상 스케치북을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빠른 속필로 어린이를 위한 좋은 작품을 많이 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김경언의 첫 작품 <두꺼비>는 55년 4월에 경향신문에 발표 되었으며 후에 비록 안익섭에게 물려주었지만 우리나라 신문잡지 만화의 대명사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김경언의 대표작으로 <칠성이>, <칠성이와 깨막이>, <모래알전우>, <의사까불이>, <삐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도라온 왕자>는 김경언의 1953년 작품으로 아라비아에서 강도들에게 잡혀간 왕자를 미국의 케난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건너가 우여곡절 끝에 강도를 물리치고 왕자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6. 시사만화 <고바우영감>의 김성환

<고바우영감>의 작가 김성환은 1932년 개성에서 태어났다. 우리 시사만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고바우 영감>은 김성환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만화 인물로서 <고바우영감>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6.25 동란이 나고 9.28 서울 수복 후 발행되었던 <만화신보>를 통해서였다. 이처럼 1950년 11월부터 먼저 주간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었던 <고바우영감>은 1955년 동아일보의 신문만화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7년 5월에 신문만화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만회 돌파를 기록한 <고바우영감>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역사를 만든 것이다. 그의 대표작은 1952년부터 월간 <학원>지에 연재되었던 <깨꾸리군 장다리군>과 아동만화로서 <소년동아일보>와 <소년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스케트군> 등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피돌이 일등병>은 김성환의 1952년 작품으로 피돌이 일등병이 나라의 원수 오랑캐를 무찌르는 내용이다.



만화는 공간예술이다.

공간을 통해 독자와 호흡 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겐 상상력이야말로 하나의 키워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제 만화 그들의 내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7]. <풍운아 홍길동>의 신동우

신동헌·신동우 형제는 함경북도 회령 출생으로 1947년 월남을 했다. 형 신동헌은 김용환을 만나 만화계로 입문하게 되어 50년대 초반에 발행된 <학원>과 그 후에 나온 대중잡지 <아리랑>, <명랑>, <야담>, <실화> 등에 간판스타로 활동하며 너털주사 라는 캐릭터를 창출했다. 단행본 만화로는 <영터리 목공소>, <럭키 칠봉이> 등이 있는데 단행본 보다는 신문잡지 만화에 그의 무게가 더 실린 것은 박학다식한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그는 만화가, 만화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음악부문에서도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방송의 음악해설 코너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음악평론가로도 활동 했다. 신동우는 서울미대 출신으로 그가 처음으로 연재한 아동만화는 그 유명한 <풍운아 홍길동>으로 형 신동헌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로 만든 그 작품이다. <풍운아 홍길동>은 1965년 2월25일 <소년조선일보>의 복간과 함께 연재를 시작한 이래 1969년까지 일천삼백 회를 돌파, 신문연재 아동만화로는 최장수 기록을 남겼다. 이후에 그는 <차돌이>, <날쌔돌이>, <삼국지>, <수호지> 등의 만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신동우는 1970년대 중반부터 만화보다는 풍속화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여기서 소개하는 <정의의 삼용사>는 신동우의 1952년 작품으로 주인공인 한철이가 흰둥이(개), 양동이(고양이), 원둥이(원숭이)와 함께 스즈랑 공주를 역적으로부터 구해내는 내용이다.

[8]. 삼형제 만화가 고우영

만화가 여전히 애들 것으로만 여겨지고, 어른들이 볼만한 극 만화가 없는 때 소재, 내용, 그림체 모두가 어른들의 정서에 맞는 본격 성인 만화의 장르를 연 것이 고우영이다. 그는 최초로 일간스포츠에 <임꺽정>을 연재하고 이어서 <수호지>, <삼국지> 등 중국의 4대기서를 장편극화하여 이렇다 할 만화잡지가 없던 시절 중요한 만화매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후 강철수의 <발바리>, 박수동의 <고인돌> 등 성인만화의 스타들이 잇달아 탄생했다. 고우영은 위로 두형한테 만화수업을 받았는데, 그 형들이 고상영과 고일영이다. 고우영의 형들이 만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두형 모두 서울대학교 미대를 나와 활동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다. 특히 고일영은 추동식이라는 필명으로 <짱구박사>를 그렸다. 형이 죽고 나서 고우영은 추동성이라는 필명으로 <짱구박사>를 이어 받았다. 여기서 소개하는 <미술주머니>는 고상영의 1948년 작품으로 동화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고, <다운도-파>는 고일영의 1952년 작품으로 천년전의 비밀을 캐는 모험만화이다.



가고문적 可考文籍

곤와지로(今 和次郎)와 『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民家』



1. 『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 第1冊 民家』가 출간된 배경

1922년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 동안 곤와지로(今 和次郎, 1881-1973)에 의한 조선부락(민가)조사는 일제가 1910년 8월 조선을 그들의 외지(外地)로 만든 후 조선의 구관(舊慣)조사에 착수한 정치적 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일제는 대한제국 강점 후 통감부 시대의 부동산법조사회(不動產法調査會, 1906년 설치)와 법전조사국(法典調査局, 1907년 12월 설치)의 구관(舊慣)조사사업을 계승하여, 1910년 9월에 취조국(取調局)을 설치하여 전과 다른 목적과 규모로 조선문화와 역사에 대한 구관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

통감부 시대에는 일제의 대한제국 지배를 전제로 일본 국내법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 직전인 1910년 6월 3일 일본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병합 후 한국에 대한 시정(施政)방침 결정의 건”(총 13항)에 의하여 “당분간 제국헌법을 실시하지 않고 대권(大權)에 의하여 통치한다”(제1항)는 방침으로 선회하였다. 통감부의 군부세력은 일본 제국의회에서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체 제324호「朝鮮 = 施行スヘキ法令 = 關スル件」(조선에 시행해야 하는 법령에 관한 건)등 12건의 긴급칙령을 제국의회에서의 승인도 얻지 않은 채 사전에 발표해 버렸다.

이 긴급칙령들에 대한 사후승낙이 우여곡절 끝에 제27회 제국의회(회기: 1910년 12월 20일부터 1911년 1월 24일)에서 통과됨으로써 조선에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법의 적용이 아니라 조선총독에게 부여된 제령권(制令權)의 행사(行使)에 의하여 새롭게 제정되는 외지법(外地法)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외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총독 직속의 구관조사사업은 취조국을 시작으로 총독관방참사관실(總督官房參事官室), 중추원으로 계승되어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조선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동화(同化)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일제의 대만영유(領有) 이후 대만통치방식을 둘러싸고 내각에 설치된 대만사무국(臺灣事務局)에서 위원의

로 활동하면서 대만에 대해 일본 국내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를 주장해 오던 하라 다카시(原敬)가 1918년 수상에 취임하였다. 취임 후 조선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조선통치정책 전반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19년 8월의 관제개정과 1921년 10월의 관제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내무부에 속해 있던 학무국을 총독에게 직속시킴으로써 학무국 내 종교과가 조선총독 직속기구가 되었고 학무국 안에 기존의 종교과 외에 새롭게 고적조사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1921년 4월 30일에는「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規程」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조선총독부 중추원 외에 종교과와 고적조사과가 조선총독부의 구관조사기구로서 그 체계를 구비하게 되었다. 중추원에서는 조선사회의 사정조사와 부락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 가운데 부락조사는 1921년 3월 와세다대학 오다우찌 미찌또시(小田內通敏, 1875-1954) 교수에게 의뢰하여 우선 각도 1개 촌락을 선정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다우찌 교수는 일본 국내에서 조사 활동을 같이 하던 곤와지로에게 민가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2. 곤와지로는 누구인가

곤와지로는 1881년 일본 아오모리현(靑森縣) 히로젠시(弘前市)에서 태어나 1907년부터 1912년까지 동경미술학교(현재 동경예술대학) 도안과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였다. 당시 동경미술학교에는 일본근대 미술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오카구라 덴신(岡倉天心)이 재직하고 있었다.

오카구라는 도안과를 가장 중시하여 커리큘럼도 회화, 조각, 건축, 장식도(裝飾圖), 공예, 무시도법, 예술사와 미학, 역사와 고고학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 학과를 지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산업화도 지향하였다. 곤와지로의 디자인 재능을 인정받아 대학 재학 시절에 곤와지로의 아버지가 의사였던 관계로 아버지의 제자가 근무하고 있던 자혜의대(慈惠醫大)의 병리해부실에서 해부 스케치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곤와지로가 민가연구를 시작한 것은 1917년부터였다. 그가 조선에서 민가조사를 하기 전 일본에서 그의 학문적 기초에는 민속학이 있었다. 1917년 사이타마켄(埼玉縣)의 민가를 조사한 데 이어 1918년에는 향토회(1910년에 농촌연구를 목적으로 조직)와 고민가(古民家)의 보존을 목적으로 발족된 백아회(白芽會)가 공동으로 가나가와현 츠히사이군(津久井郡)의 향촌(鄉村)을 조사할 때 그는 조사일원으로 참가하였고 이 때 향토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오다우찌(小田內通敏)와 인연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향토회와 백아회를 이끌고 있던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를 따라 농촌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조사활동 성과로서 1942년에 『日本の民家』로 출간되었다. 그의 민가연구에서 보다 본격적으로는 1919년 농상무성의 농촌주택에 관한 부문의 촉탁이 되어 전국의 농촌주택을 시찰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곤와지로는 또한 오다우찌 등과 함께 향토회에 참가하면서 인문지리연구 그룹을 만들어 공동 조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곤와지로는 예술 전공에서 민속학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예술의 기술적 방법을 민속 연구에 크게 활용하여 그의 연구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과정에서 오다우찌로부터 많은 협력과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곤와지로가 조선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오다우찌(小田內通敏)가 맡게 된 조선부락조사기구에 민가부분을 담당하게 되면서이다. 그는 1922년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 동안 공공기관의 도움(통역 포함)을 받으면서 조선민가를 조사하였다. 이것이 곤와지로의 첫 번째 조선 조사이다. 그 조사결과물은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 제1책(민가)』로서 1924년에 발행되었다.

곤와지로에게는 조선 민가를 조사하면서 조선총독부로부터 무엇을 주로 조사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다우찌와 함께 일본 민가를 조사하면서 갖게 된 의문점을 조선 민가조사에서 해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의문점이 일본 민가 또는 일본 가람형식의 기원이 조선의 민가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조선총독부에서 그에게 요구한 조사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일본 국내에서 민가를 조사하면서 얻은 방법론을 조선 민가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 조선의 민가를 보는 관점도 그렇다. 이것이 다른 여타 조선총독부 조사보고서와 차별성을 갖게 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지속적으로 조선총독부 기관조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인지 모른다. 그에게는 식민지 지배 측의 조사자로서 제국의식이나 우월의식은 크게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조선의 민가에 대한 식민지주의적 시선(더럽다 등)보다는 자연스런 미(美)와 소

박함, 청결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朝鮮部落調査特別報告 第1冊(民家)』는 일본의 민가와 가람형식의 기원 등을 고찰할 목적으로 19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1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조선의 경성, 평양과 그 부근, 함흥 및 그 부근, 전주와 김천, 대구와 경주의 민가를 고현학적(考現學的)으로 토속학적(土俗學的)으로 관찰·면접 조사한 것으로 본문 78쪽과 도판 41의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조사 보고서이다.

따라서 곤와지로의 조사보고서는 적어도 19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단기간에 역사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주요 도시의 민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사시점이 1922년 가을의 한국 민가 중 일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사보고서는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조사보고서는 서언과 결론과 함께 전체 3장으로 구성하였다. 그 3장 전체는 일반구조, 지방적 고찰과 온돌로 구성된 제1장(구조 및 그에 대한 고찰)과 일반형과 북방형, 개성 읍내의 민가와 일본 민가와 교섭으로 구성된 제2장(방의 배치와 그에 대한 고찰)과 조선인의 개량민가와 농업이민자의 주거(住家)로 구성된 제3장(일본인과 교섭을 가지는 민가)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곤와지로에게 분명한 선정 기준은 없었고 다만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상류층부터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까지를 소개받았다는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그는 조선의 주거에서 방의 배치방식을 접하고 특히 조선의 상류 주거공간 배치에서 “조선민족의 자연에 대한 마음이 솔직하고 고의적인 정돈을 싫어하며 계획되지 않은 우연을 무엇보다도 상미(賞美)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와 같은 시선은 다름이 아니라 곤와지로의 문화관에서 온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된다. 곤와지로는 집의 재료와 양식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를 해당 민족들은 “습관” 또는 “운명 지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곤와지로는 이것을 “지리적 필연”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모든 새로운 고민의 힘을 없애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곤와지로의 문화에 대한 관점은 적어도 문화상대주의적,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 역사지리학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오다우찌는 내선융화를 위해 평등을 주장한 데에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 전반을 비판하거나 식민지 지배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오리엔탈리즘에서는 벗어나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필자가 살핀 곤와지로에게도 식민지 통치에 대한 비판의 논조는 보이지 않았다. 확인할 수 없지만 곤와지로에게 조선민가에 대한 애착의 저변에는 여전히 우월적인 오리엔탈리즘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에게 조선민가는 원시성과 소박성, 아름다움으로 비추어졌다는 데에서 그러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조사목적이 일본 민가와 사찰 양식의 기원을 조선에서 찾으려는 시각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읽을 수 있다.

당시 일본 인류학계의 조선 문화에 대한 토속학적 접근은 일본 고대 문화의 잔존(survival)문화로서의 조선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저변에는 동등이 아니라 차별 문화의식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아니라 문화진화 정도의 차이에서 온 차별의식이다.

3. 곤와지로의 조선민가 조사방법

1. 고현학적 조사방법

그는 조선 일반형 민가의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자세하게 관찰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층에 따른 민가 내부의 구성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민가의 방 배치와 생활문화와의 관계에 주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안방의 경대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조선인들의 청결함, 그것도 여성만이 아니라 남자도 거울을 보고 차림에 신경을 쓸 정도로 하여 경대를 통해 생활문화양식까지도 기술하였다.

2. 일본민가와와의 비교방법

곤와지로는 조선의 민가를 일반형과 북부형으로 구분하였다. 곤와지로는 방의 배치에 따라서 조선의 민가를 일반형과 북부형으로 구분하였다. 일반형은 대체로 부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된 밀접한 땅 구분의 택지에 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 부류이고, 북부형은 대지의 개념이 희박한 지방에서 나타나는 부류로 대지라는 개념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립해서 지어진 데에서 나타난 부류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구분이 그 후 조사자들의 구분과 달리 단순함이 느껴지는 것은 조사지역의 협소와 단기간에 걸친 조사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북방형 민가는 주로 평안북도, 함경남북도 및 강원도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였다. 곤와지로는 일반형과는 달리 개방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북부조선에서는 오히려 부인들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점에 착목한다.

곤와지로는 조선 민가 조사보고서 여기저기에 조사 결과로서『日本の民家』를 인용하였다. 그의 일본 민가 조사를 바탕으로 조선 민가와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방법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일본 민가의 기본형의 기원을 조선 안에서 곤와지로나 북부형으로 분류한 방의 배치에서 찾았다. 아마도 곤와지로나 오다우씨의 부락을

수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가 일본 국내의 민가 기원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의문을 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곤와지로는 조선 민가의 일반형보다는 북부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아예 도면을 통하여 북부형과 일본 민가의 유사성(아니 동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조선 민가의 일반형과 북부형에서의 온돌을 비교하는 대목에서 합리성과 불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부형의 여러 온돌방이 한꺼번에 따뜻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형 민가의 온돌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부지방 사람들도 그것을 원래의 온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일반형 민가의 온돌방은 불 지피는 곳을 독립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경제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불 지피는 곳이 대개 안마당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 방의 온도를 낮추게 하기 쉽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북부형 민가의 온돌에서는 불을 지피는 곳이 실내 지면에 설치하여 밖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 곤와지로는 일본민가의 기본형이 조선 북부형의 민가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양자 간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일본에는 온돌문화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온돌문화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선의 북부 혹은 현재의 조선 북부에 거주하는 종족의 조상은 일본 4개의 방 배치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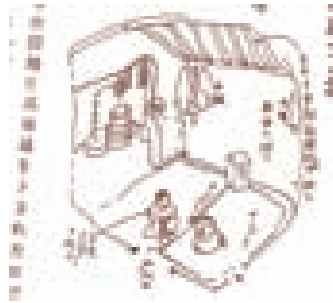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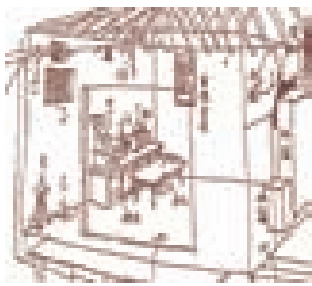
4. 곤와지로의 조선민가에 대한 인식

1. '온돌론'

곤와지로는 당연 조선의 민가에서 온돌에 주목하였다. 그는 온돌방의 단지 지붕을 받치는 뼈대가 다 보이고 진흙이나 종이로 싸여 있는 천정 모습에서 이상함 외에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가 느낀 이상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상적인 세계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온돌의 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여름에는 방에서 잘 수 없기 때문에 집 밖에서 자는 습관을 근거로 “조선 사람들의 집은 겨울용”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때문에 조선의 주거에는 마루방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조선의 겨울을 경험하지 않았다.

온돌생활 때문에 조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예를 들면 비굴하다, 활기가 결여되어 있다, 핑계만 대고 일을 하기 싫어한다)이 있는데 그는 “어떠한 영향이 생리적 또는 심리적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 있었다. 온돌과 조선민족심리 형성과의 관련성은 당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는 언급을 회피하였지만 그 양자의 관계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 또한 위생이라는 관점에서 온돌문화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온돌과 위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는 이를 연구하고 있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온돌의 보온효과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성과를 접하였다. 조선사회에서 온돌문화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곧와지로는 생각했다. 땀감과 온돌과의 관련성을 논급하는 대목에서도 온돌을 개량하려는 정책에 대해 그것이 땀감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침구를 약간 충분히”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반 민중 사이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온돌문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온돌문화가 지배계층으로 옮겨졌다고 보았는데, 그는 조선사회에서는 어떠한 원시적인 집에서도 온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로 보았다. 그는 일본의 다다미는 그렇지 않다는 점과 비교하여 그렇게 보았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원시적인 집일수록 방바닥 마루바닥을 네모나게 잘라 내고 재를 깔아 난방 취사용으로 불을 피우는 이로리(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곧와지로는 조선의 온돌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발달된 문화양식이며 조선의 온돌문화는 이동민족의 문화로서 그러한 이동민족들의 매개로 조선에 전파된 것은 아닌가 라고 추정하였고 그러나 온돌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놓았다.

2. 1920년대 조선 민가의 변화에 주목

곧와지로는 조사 당시 조선사회에서 주택문화의 변화를 목격하였다. 우선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재래 주택을 개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가 관찰한 북부조선에서 의 개량 방향은 재래 주택에 새롭게 일본풍의 네 개의 방을 추가하고 거기에 다다미를 까는 방식으로 그가 명명한 선화절충식(鮮和折衷式)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아가 일본풍 가운데 도쿄노마(일본식 건물의 객실 상좌 바닥을 한 단계 높게 만든 곳), 찌가이다나(두개의 판자를 좌

우로 높이가 다르게 매던 단 장식 선반), 오시이레, 일본풍의 욕실, 일본풍의 손님방 앞의 연못이 나타나고 4개씩 짝지어 맞춘 방 배치의 온돌을 오른쪽 반과 왼쪽으로 두 개 나란히 설치한 것 등 보다 일본풍을 많이 함유한 절충식이 등장하였다.

또 방 배치를 크게 접객 부분과 주거 부분으로 나누어 응접실은 서양식으로 하고 거기에 접하는 서생방은 온돌로 하고 순수 일본풍의 화장실도 구비한 조선과 일본과 서양식의 절충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가 관찰한 지역은 함흥지방으로 그는 이곳을 조선 민가의 북부형과 일반형이 교섭되는 지역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지역에서의 변화와 함께 북부조선의 다른 지역에서의 주택문화의 변화를 관찰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는 보수성이 강한 개성에서 주택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곳의 어느 주택은 손님 접대용으로서 큰 홀이 의자식으로 되어 있었고 안방도 의자식으로 변하였고 가구들도 조선의 취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서양풍으로 변화되고 있었으며 식당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 곧와지로는 개량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식당을 별도로 두는 것은 실제로 큰 개량”이며 “이러한 방들의 배치는 재래 전통을 바로 지키면서 정돈하고 개선하는 의미”에서 경탄할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 북부 조선에서의 개량주택에 대한 언급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반응이었다. 그는 토속학적 시각에 의하여 재래 주택을 왜 바꾸려고 하는가에 대해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그는 재래의 주택을 개량하는 양식의 차이에서 “북방사람들의 개량은 순진한, 소박한, 진취적인 정신에서 오는 것”이며 남방 사람들의 그것은 “면밀하고 진실미”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일제 강점 상황에서 조선인 지식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고찰의 여유가 없었을 지라도 이와 같은 기술은 별도의 문제이다.

최석영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연구 조교수

기획

韓國의 禮節

우리나라는 예절의 나라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5. 한국의 예학자(禮學者)와 예서(禮書)

가. 역사적으로 본 한국의 예절(禮節) 기록

예절이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자생 정립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예학도 고유성 있는 학문으로 정립되고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자를 상용하는 한자문화권으로 정착되면서 예학도 중국의 예학과 연관되어 발달해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고유적인 예학의 특성을 유지해왔으며 그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예학의 기원을 유교(儒敎)의 전래시기와 짜 맞추려는 경향이 농후하나 그것은 예절의 고유성에 배치되는 견해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 고대(古代)의 예절 기록

우선 각종 기록에서 우리나라 고대의 예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보인다.

①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편 | "환웅천왕은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

였다(桓雄天王 將風伯 雨師 雲師 而主穀 主命 主病 主刑 主善 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이란 생활규범, 즉 예절이다.

② ‘서경 순전(書經 舜典) | 순임금이 말하기를 “설(契)아, 백성이 서로 친하지 못하여 위계와 질서(五品 · 父母兄弟子)가 문란하구나, 너를 사도(司徒)로 삼으니 아버지는 의롭게 하고(父義), 어머니는 사랑하고(母慈), 형은 우애하고(兄友), 동생은 공손히 하고(弟恭), 아들은 효도(子孝)하는 오교(五教)를 펴서 공경하고 너그럽게 하라” 고 했다.

③ ‘맹자 등문공장(孟子 騰文公章) | 성인(舜)께서 근심하시어 설을 사도로 삼아 오륜을 가르치시니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이다.

④ ‘맹자 이루장(孟子 離婁章) | 순은 저풍에서 태어나 부하에 옮겨 살다 명조에서 돌아가시니 한국인(東夷之人)이다.

⑤ ‘논어 자한편(論語 子罕篇) | 공자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시면서 “누추하지 않다” 고 했다.

⑥ ‘동이열전(東夷列傳) | “한국은 동쪽에 있는 예절의 나라이며, 군자가 사는 땅” 이다.

⑦ ‘소학 명륜장(小學 明倫章) | 소련 대련이 부모의 죽음에 슬픔을 극진히 해 3년을 근심하니 한국인의 아들(東夷之子)이다. 이상은 한자문화 관계로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록의 빈곤 때문에 주로 중국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예절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2) 삼국시대와 고려의 예절

삼국시대 이후 고려 말기까지는 한자(漢字)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기록으로 우리나라 예학의 발달과정을 볼 수 있다.

① 504년 | 신라 지증왕(智證王) 5년에 상주가 입는 상복을 정했다.

② 586년 | 신라 진평왕(眞平王) 8년에 예부(禮部)를 설치했다.

③ 1147년 | 고려 의종(毅宗) 1년에 5촌까지의 근친 간 금혼(禁婚)을 시행 했다.

④ 1234년 | 고려 고종(高宗) 21년에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을 간행했다.

특히 상정고금예문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간행되기 약 130년 전인 인종(仁宗 1123~1146在位) 때에 최윤의(崔允儀 1102~1162) 등 17명에게 왕명을 내려 고금의 예절을 수집해 집대성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 책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그 때에 우리나라의 예절이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는바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독립된 예서(禮書)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고려 조 예학의 집결체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상정고금예문은 전하지 않으나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려사(高麗史)의 예지(禮志)이다. 예지의 내용은 오례(五禮)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대본이 되는 것이다.

3) 고려 말기와 조선시대의 예학

고려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주자학(朱子學)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체계화 된 민간 예서인 주희(朱熹)의 가례(家禮)를 접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예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근대 예학의 근원이 중국의 예학이 아니냐는 반문이 일어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 근거로 현대 중국인의 생활 속에서는 일체 주자의 가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중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아 중국에서 자취를 감춘 주희의 가례가 한국에 온존한 이유는 그것이 한국인의 정서와 합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학자들은 주희의 가례를 연구해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을 한국화 했다.

한국의 생활문화가 중국의 학자에 의해 체계화 되고, 그것이 역수입된 것이 한국 예학의 기반이 된 것이므로 한국 예학의 뿌리는 한국의 생활문화이다.

한국의 역대 학자들은 누구든지 예학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예학에 대한 대표적인 업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禮 學 者						禮 書		
구분	성명	생?졸년	연원	학파	당색	책명(권?책수)	찬?간	비고
01	崔允儀	1102-1162	(우리나라 최초 예서)			①詳定古今禮文 50卷	1234	金屬活字本
02	權近	1352-1409	(중국에서 최초 해설서)			②禮記淺見錄 26卷 11冊	1405	
			(政府)			③國朝五禮儀 8卷 6冊	1474	朝鮮 國家儀禮
			(政府)			④經國大典 6典	1485	朝鮮 國家法典
*03	鄭述	1543-1620	李滉 · 曹植門人	嶺南	東人	⑤五先生禮說分類 20卷	1629	宋代學者 禮說
*04	金長生	1548-1631	李珥 門人	畿湖	西人	⑥喪禮備要 2卷 2冊	1583	民間禮書 嚆矢本
						⑦家禮輯覽 10卷 6冊	1599	朝鮮禮學理論書
						⑧疑禮問解 4冊	1646	變禮 542問答
*05	鄭經世	1563-1633	柳成龍 門人	嶺南	東人	●禮學 勝於退溪		
*06	金集	1574-1656	金長生의 子	畿湖	西人	⑨疑禮問解續 1冊	變禮	151問答
*07	宋浚吉	1606-1672	金長生 門人	畿湖	西人	●得意 禮學		
*08	俞榮	1607-1664	金長生 門人	畿湖	西人	⑩家禮源流 14卷 8冊	1711	家禮前後 禮說
*09	李維泰	1607-1684	金長生 門人	畿湖	西人	●禮學 造詣		
*10	朴世采	1632-1695	金集 門人	畿湖	西人	⑪南溪禮說 20卷 10冊		南溪文集中
*11	李緯	1680-1746	金昌協 門人	畿湖	西人	⑫四禮便覽 8卷 4冊	1844	家禮 實用便宜禮書
12	李宜朝	1727-1805	宋能相 門人	畿湖	西人	⑬家禮增解 10冊	1792	變禮 解說

4) 현대의 한국 예절

우리나라 개화기 이후의 예학은 새로운 문명생활에 접하면서 삭을 티우지 못했다. 1910년의 국권상실, 1945년의 해방과 서구 문물의 쇄도, 1950년의 6.25사변, 1960년대 이후의 경제위주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예학의 침체기를 맞았다.

다만 예절이 물질문명에 밀려 허례허식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법령으로 규제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필연적으로 예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의 한국의 재건(禮儀韓國再建)을 위한 민간 기구가 생기게 되었다.

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家庭儀禮法律): 1969년에 예절의 허례허식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입안해 제정했다. 그러나 예절은 관습이지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저항으로 1999년에 폐기되었다.

②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 | 전항 법률의 실천지침으로 1973년에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전래되는 관습에 부딪쳐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③ 한국전례연구원(韓國典禮研究院) | 우리나라 최초로 예절을 연구하기 위해 1977년에 개인이 설립한 민간기관으로서 전래예절을 현대 생활여건에 접합시키는 예절 연구를 하는 한편, 예절잡지를 간행하여 무가로 전국의 교육·문화기관에 계속적으로 배포하기도 하였다.

④ 예의생활실천운동(禮儀生活實踐運動)의 전개 | 우리나라 최초로 위 한국전례연구원에서 주관하여 1983년부터 예의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⑤ 예절지도자의 전문교육 | 우리나라 최초로 위 한국전례연구원에서 “예절의 전문화, 직업화, 자격증 시대에 대비하자”며 예절 지도교육 연구 120시간과정을 개시하였다. 그 출신자들이 각종 예절단체를 설립·관리하고, 각급 예절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⑥ 국가예산으로 실천예절지도사 교육 | 우리나라 최초로 2004년부터 정부(문화관광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하여 실천예절지도사(實踐禮節指導師) 교육을 시작하였다.

⑦ 예절자격증 제도 시행, 정착 | 정부에서 민간자격으로 예절 자격증 제도를 등록받아 관리하고 있다.

⑧ 예절관계자 국가 포상 시작 |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 예학자 두 분(沙溪 金長生, 愼獨齋 金集)이 사림(士林, 국민)의 발의(發議, 추천)로 의정부(議政府, 국무회의)의 사정(査定, 결의)을 거쳐 왕명(王命, 대통령)으로 문묘에 종사(文廟從祀)하여 겨례의 스승으로 승현(陞賢, 현인으로 받들)된 일이 있는데 2007년에 민주 한국 최초로 예절관계자를 국민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민훈장(國民勳章)을 서훈(敍勳)하여 예절관계자 국가포상이 시작되었다.

나. 한국의 대표 예학자와 정통예서(正統禮書)

1) 조선시대 예절의 생활화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예절이 완전히 일상 생활화하여 학문을 하는 학자라면 의당 예절에 대한 글을 쓰게 되고, 문답하고, 화제(話題)가 되곤 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간행된 예서 뿐 아니라 필사본(筆寫本) 까지도 예서로 전해지는 책이 많다.

그러나 예절을 공부하고 준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모두를 예학자, 예서라고 참고하고 따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학자로 지목되고, 예서로 분류된 것들을 정통(正統)으로 보는 것이다.

(알려진 한학자, 실학자, 정치가, 권세가라고 해서 그들이 바른 예학자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조선의 정통 예학자와 예서

우리가 예절을 말함에 있어서 자기 집의 예절을 앞세우거나, 유명한 학자의 책에서 보았다거나, 어떤 저명인이 그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앞세워서는 설득력이 없다.

역사적으로 예학자로 지목되고 정통예서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의 학설과 예서에 의해야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필자의 독단적인 견해보다는 모두의 인정을 받고 있는 역사학자의 지목한 바에 의해서 쓸 것이다.

아래 표기의 이름·번호 앞에 *표를 한 학자는 현상윤의 조선 유학사(玄相允 朝鮮儒學史)에 “조선예학의 제인(諸人)”, 또는 이병도의 한국유학사(李丙燾 韓國儒學史)에 “한국의 예학자”로 지목된 학자들이다.

① 최윤의(崔允儀 1102~1162) 우리나라 최초의 예서인

(1)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 50권을 저술하여 1234년에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② 권근(權近 1352~1409) 중국의 예사이지만 최초의 해설서인

(2)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26권 11책을 저술해 1405년에 간행하여 성균관의 교재로 쓰였다.

○조선정부에서 왕실의 예서로 편찬하여 1474년에 (3)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8권 6책을 간행하였다. 그 속에 대부·사(大夫·士)의 가례도 첨가하였다.

○조선정부에서 90년간을 증보하여 1485년에 법령집 (4)경국대전(經國大典) 6전(典)을 완간하였다. 법령에 예절의 상당부분이 규정되었다.

* ③ 정구(鄭述 1543~1620) 퇴계·남명의 제자, 영남학파(嶺南學派), 동인(東人), (5)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20권 7책을 저술하여 1629년에 간행하였다.

* ④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율곡의 제자, 기호학파(畿湖學派), 서인(西人), (6)상례비요(喪禮備要) 2권 2책, 1583년 저술, (7)가례집람(家禮輯覽) 10권 6책, 1599년 저술, (8)의례문해(疑禮問解) 4책이 1646년에 간행되었으며, 조선예학의 종장(朝鮮禮學宗長)이라 숭앙(崇仰)받고 겨례의 스승으로 승현(陞賢)되었다.

* ⑤ 정경세(鄭經世 1563~1633) 퇴계의 제자인 서애의 제자, 영남학파, 동인, 예서의 저술은 없으나 禮學에는 勝於退溪 라는 평을 받았고, 영남학파의 예설이 기호학파로 전해지는 창구가 되었다.

* ⑥ 김집(金集 1574~1656) 사계의 아들, 기호학파, 서인, (9)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 1책을 저술했다. 사계의 예학을 집성하였으며 겨례의 스승으로 승현(陞賢)되었다.

* ⑦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사계·신독재의 제자, 기호학과, 서인, 예서의 저술은 없으나 '得意 禮學'이라는 평을 받았고, 기호학과 사계와 신독재 부자의 제자로서 영남학과 정경세의 사위가 되어 영남학과의 예설을 기호학과로 연계하는 가교(架橋)역할을 하였다.

* ⑧ 유계(兪槩 1607~1664) 사계·신독재의 제자, 기호학과, 서인, (10)가례원류(家禮源流)14권 8책을 저술하여 1711년에 간행되었다.

* ⑨ 이유태(李維泰 1607~1684) 사계·신독재의 제자, 기호학과, 서인, 예서의 저술은 없으나 '禮學 造詣'라는 평을 받았다.

* ⑩ 박세채(朴世采 1632~1695) 신독재의 제자, 기호학과, 서인, (11)남계예설(南溪禮說)20권 10책은 그의 문집에서 예설만을 가려 뽑은 것이다.

* ⑪ 이재(李穡 1680~1746) 김창협(金昌協)의 제자, 기호학과, 서인, (12)사례편람(四禮便覽) 8권 4책을 저술하여 1844년에 간행되었다.

⑫ 이의조(李宜朝 1727~1805) 송능상(宋能相)의 제자, 기호학과, 서인, (13)가례증해(家禮增解) 10책을 저술하여 1792년에 간행되었다. 현재도 변례의 고경에는 가장 많이 준용된다.

6. 한국 예절의 역사적 변천

가. 고려 이전의 예절

위 각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절은 기록상으로도 그 역사성이 유구함을 알 수 있으나 그 변천 과정을 보면 특기할 부분이 적지 않다.

사람다움을 지니는 도덕성(道德性)과 사람 노릇을 지키는 윤리관(倫理觀) 및 바른 사람살이(生活)를 행하는 예의정신(禮儀精神)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전수되었음은 황제(黃帝)와 순(舜)임금 및 소련, 대련(小連 大連) 형제의 효도 등이 중국의 기록으로 입증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기록으로 전하지 못함은

고구려 멸망시의 전적(典籍) 소실로 인한 것이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사실상 대륙 중국의 간섭을 자초했고,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중국문화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특히 고려 말엽에 안향(安珦·裕)에 의해 주자학(朱子學)이 들어오면서 사태는 심각하게 전개된다.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전래된 불교가 고려 때에 국교화 되면서 우리 겨레의 전통예절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가 돌아갔을 때 모시는 상례(喪禮)의 간략화와 효도를 계속하는 제례(祭禮)의 형식화 등이 전통적인 생활규범을 중시하는 중간지배층의 혐오감을 일으켰다.

그런 즈음에 중국에서도 쇠퇴했던 공자의 유학(儒學)을 중흥시킨 주희의 학설이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선비들은 눈을 크게 떴다.

주희의 주장들이 바로 우리 겨레가 잊었던 우리의 생활문화였기 때문이다. 특히 주희의 예설(禮說)인 주자의 가례(家禮)는 우리의 전통사상인 효제충신(孝悌忠信)을 바탕에 깔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불교의 폐해를 익히 알던 선비들이 조선조에 집권층으로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도덕 윤리 예절과 맥을 함께 하는 주자학을 내세워 불교를 억압하기 시작해 소위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이 표방되었고, 조선조의 정치사상은 주자학이라 할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

나. 조선시대 이후의 변천

그러나 주자의 예절인 가례는 그 정신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의정신이었지만 중국에 전수 된 이후 중국의 생활여건에 맞도록 변형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관습과 서로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때까지 정통예절이 정립되지 못한 단계에서 '주자의 가례'를 접한 지배층에서는 그것을 고집했지만 널리 행해질 수는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일반대중은 각종 의례제도의 미 확립으로 정설이 없는 상태였던 것을, 1583년에 사계 김장생선생이 "모든 예절이 주자의 가례에 소상히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예절

이기 때문에 우리의 풍속이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마땅히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게 변통하는 요령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요령을 얻지 못한 선비들이 주자의 가례만을 고집하는 것이 병폐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설과 고금의 관습을 참작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예절을 정립 한다”면서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쓰고, 이어서 1599년에 가례집람(家禮輯覽)을 펴내니 우리나라에서 ‘민간예절서’로는 처음이라 할 것이며, 특히 전통관습에 의한 우리예절의 정립으로도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예서를 펴냈으나 대개 주자의 가례의 해설형태에 머물렀고, 1844년에 펴낸 이재 선생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많이 읽혔다.

이렇게 활발한 예서의 간행이 있었지만 대개 지배계급(양반)의 전유에 불과하던 것이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예절의 실천이 서민대중에게 까지 깊이 파급되었다.

그러다가 1910년 대한 제국이 국권을 잃고 민족수난의 시대가 되면서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다시 예절의 혼란기를 맞았다.

1945년 해방을 맞았으나 6.25동란과 급격히 몰아친 서구문명 및 물질만능의 퇴폐상으로 바른 예절의 정착을 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특히 가정의례의 허례허식화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에서는 1969년 1월 16일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법률 2079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예절은 가정의례만이 아니다. 각종 생활예절의 미 확립은 방치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우리나라 현대의 예절

우리는 물질문명의 회오리 속에서 물질만능과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혼돈사회를 맞고 있다.

소위 물질과 정신의 갈등기에 처한 현대인들은 그나마 생활규범마저도 정립하지 못해 더욱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이다.

전래되는 각종 예절은 그대로 현대 생활여건에 적용될 수 없어서 서로 벗어나 떨어진 상태에 있고 현대예절은 정립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전통예절의 절치는 더러 흉내는 내지만 그 정신은 망각한 채 행해지니 더욱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천태만상의 주장들이 횡행하기도 한다.

이런 시점에서 전래되는 각종 예절을 정설에 입각해 연구하여 그것을 새 시대의 생활여건에 접합시키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규범이 흔들리면 그 정신마저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는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마저도 손상을 입게 되고, 마침내 자기상실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예의지국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찾아 누리려면 예의한국을 재건해 한국인의 긍지를 드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분명히 예의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것을 일깨워 모두가 예의생활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시 예의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누구든지 건전한 상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찰해 한 마디의 말, 일거수일투족이 관행성사회계약적 생활규범(慣行性社會契約的生活規範)인 예절에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예의를 실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간답게 할 것이며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영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 민족자존, 세계화의 고동소리와 함께 바야흐로 예절교육과 예의생활의 실천이 시대적 요청으로 부각되어 마침내 대학교육에까지 예절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그래서 예의한국 재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 방법인 예의생활실천운동이 전국조직으로 국민운동화 하고 있으며 실천예절지도사 교육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고, 민간자격 예절자격증을 국가에서 등록받아 관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거창문화원

면우 곽종석 선생의 학문과 사상 학술대회 개최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10월 29일 도립거창대학 강당에서 「면우 곽종석 선생의 학문과 사상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 경상대 남명학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이은 제2차 학술대회로 경상대 남명학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치러졌다.



양동인 거창군수, 군의회 의원, 거창교육장 및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거창군민을 비롯해 한주선생 추모회(대구, 부산 등)와 양산, 함양, 산청, 합천, 고령 등지의 문화원·향교·유림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식, 1부 주제발표, 점심식사, 2부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상대 최원석 교수의 사회로 경북대 설석규 교수의 '면우 곽종석의 정치철학과 국권회복 방향',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하 교수의 '贊疑錄을 통해 본 면우 곽종석의 성리설', 경상대 신승훈 교수의 '면우 곽종석의 文學思想考', 성균관대 이영호 교수의 '면우 곽종석의 論語學과 그 經學史的 位相', 원광대 이의강 교수의 '면우 곽종석의 漢詩의 人格美', 경상대 이상필 교수의 '면우 곽종석의 남명학 계승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오영 교수의 '19세기 영남 학계와 면우 곽종석의 理學

‘대한 주제발표와 경상대 허권수 교수 외 7명의 교수들과 함께한 종합토론을 통해 19세기 우리나라 근대 정신사를 대표하는 면우 곽종석 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조명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거창문화원에서는 매년 우리 거창을 빛낸 선비, 청백리, 독립운동가, 충·효·열 등 많은 선현들의 활동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 발표회를 가질 계획을 밝혔다.

구리문화원

제 31차 문화유적답사 <김천>

구리문화원은 9월 17일(목) 김천으로 회원 80명이 유적답사를 다녀왔다. 김천 직지사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여 직지사 바로 우측에 있는 세계 도자기 박물관을 먼저 관람하였다. 세계 각국의 도공들이 정성들여 만든 도자기들을 한 자리에서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즐거운 자리였다.



복전영자(福田英子)님은 일본인으로 오랫동안 자기 미술을 공부한 자기이론가이다. 2대에 걸쳐 세계 여러 나라의 도요지와 박물관을 시찰, 수집한 소장품들을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김천시의 희망을 보고 기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자기 박물관 바로 뒤에는 한국 시조의 거봉인 백수 정완영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알아볼 수 있는 백수문학관을 관람하

였다. 점심식사 후 직지사를 향하는 길 우측에는 멋진 야외 조각 공원이 마련되어 있었다. 공원을 산책한 후 도착한 직지사에서는 하얀 머리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직지사(直指寺)라는 절 이름은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禪宗)의 가르침에서 났다고도 하며 도리사를 창건한 아도화상이 손가락으로 황악산을 가리키며 명당터를 일러 주었다하여 곧을 직(直)에 손가락 지(指)자를 따서 '직지사'라 했다고도 전한다.

경내에는 석조약사여래좌상(보물 319), 대웅전 앞 3층 석탑(보물 606), 비로전 앞 3층 석탑(보물 607), 대웅전 삼존불 탱화 3폭(보물 670), 청풍료(淸風寮) 앞 3층 석탑(보물 1186) 등의 문화재들이 있다.

김산향교는 경상북도 문화재 제 257호로 지정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강설과 강여구가 사재를 회사하여 중건하였다. 조선 중기까지는 지방민의 교화와 자제들의 중등 교육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편집부)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준공식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5호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준공식이 9월 11일 오전 11시 갈매동전수관에서 개최되었다.

전통한옥양식으로 대강당과 음식조리실등을 갖춘 전수관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 5억 7천 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을 7월 완공되었으며 이날 준공식에는 박영순 구리시장과 시의원, 안창덕 갈매도당굿보존회장과 갈매주민들, 박명섭향토사연구소장을 비롯한 구리문화원회원 들이 참여하였다.

1부 기념식에 이어 주민들이 정성들여 마련한 식사가 끝난후 전체 열 두 마당에 이르는 갈매도당굿이 이어졌다.

갈매동 도당굿은 4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굿으로 모계로 4대째 무당이 세습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격년제로 음력 3월초에 구리문화원과 갈매도당굿보존회 공동주관으로 3일에 걸쳐 산신제와 유가들기, 본 굿으로 진행된다.

(글: 편집부, 사진:김웅주 작가)

대덕문화원 · 대덕문예회관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굴다리, 소통의 흔적을 굽다’

굴다리에 설치작업 시작

대덕문화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후원으로 시행하는 ‘굴다리, 소통의 흔적을 굽다’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 20여명을 모집하여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6일 부터는 굴다리(범동→읍내동)에 설치작업을 시작 하였다.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아마추어의 반란이 시작됐다」 공연안내**



**대덕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호남의 대표 명가 녹우당을 가다'
문화탐방 실시**



대덕문화원에서는 문화원회원대상 매년 2회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산일원을 다녀왔으며, 하반기 탐방은 전라남도 해남일원을 탐방하고 올 계획이다.

- 일 시 | 2009. 10. 27(화) 08:00~19:00
- 장 소 | 전남 해남일원(대흥사, 녹우당)
- 참가대상 | 대덕문화원 회원 70명

**2009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수업 종강식 및 작품발표회**



대덕문화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대덕구내 이주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참여자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일 시 | 2009. 10. 25(일) 16:00~17:00
- 장 소 | 대덕구문예회관 2층 공연장
- 내 용 | 연극, 편지글 및 소감문 발표, 시낭송등
- 참여대상 | 프로그램참여이주민 23명

**정선문화원
2009 문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은 지난 10월 17일 '2009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초청인사 및 문화회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선살내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대근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장을 비롯한 유창식 정선군수, 최승준 정선군의회 의장, 폐광지역 4개 시·군 문화원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국악인 안소라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정선문화원 동아리들의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다.

또한 이번 문화의 날 기념행사는 범 문화회원 시상을 통해 문화회원의 지역문화 선도의 역할을 분명히 드러내고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격 있는 문화축제로 연출하여 지역문화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향토기자단 3차 답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향토사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 향토기자단이 3차 답사를 실시하였다.



1차 북평5일장을 시작으로 2차 백봉령옛길을 답사하고 이번 3차에는 영동권 마지막 코스인 정선5일장까지 답사를 실시하였다. 향토기자단 학생들은 이번 답사 및 취재활동을 통해 평소 지역에서 느끼던 훈훈한 인심을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향토기자단 답사 활동은 '영동에서 영서까지' 옛 장(場)길을 답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11월에는 발표회를 거쳐 답사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 포천문화원

■ 임.회원 관외유적답사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22일 문화원 임.회원 등 1백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부 문화유적지인 청주, 청원을 중심으로 관외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는 현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상당 산성, 문의문화재단지 등 역사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중부권 문화에 대한 내용과 분포, 역사의 재조명을 통한 임.회원의 역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또한 포천출신으로 충절의 표상이신 면암 최익현 선생 영정을 모신 모덕사를 방문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포천문화원은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올바른 가치관 확립,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 문화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문화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가족사랑 다지기 사업 일환인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이 8월 14일과 15일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이번 답사 체험 지역은 경북 영주시로 '금성대군 신단-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부석사-희방사' 코스였으며 영주소백산예술촌에서 문화예술체험을 하였다.



총 13가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 속 다양한 문화체험과 시골의 정겨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알찬 2일이었다. 최초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주변의 이름다음과 선비촌의 조선시대 가옥들, 특히 부석사의 이름다음과 저녁 타종 관람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산사의 조용함속에 퍼지는 사물의 소리는 저마다의 고유한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예술촌에서 모듬북 공연과 강의는 참가자 모두에게 감동적이었다. 숙소 옆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고 과수원에서 사과따기 체험을 하고 가족과의 오붓한 화로구이체험, 희방사의 역사와 선덕여왕과의 관계, 소백산의 자연과 도마뱀 등. 역사와 문화 예술이 있는 영주에서 참가한 가족들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3월부터 개강한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이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지역에 대한 강의를 통해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재 등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가지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 및 시민들, 국외동포(사할린 어르신들)를 대상으로 실내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지역사 속 재미있는 이야기, 문화재 속 그림 배우기, 나라와 고장을 지켜낸 지역의 독립운동가 이야기 등으로서 한국의 역사와 생활상, 세시풍속, 음식, 화성8경, 용릉·건릉·독립운동사 등 지역사에 대한 강의를 연중 진행하고 있다.

강동문화원

제 4기 강동문화대학 문화유적답사 전라북도 고창으로 떠나

10월 15일(목)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에서 주관하는 제4기 강동문화대학에서는 문화대학 회원, 1~4기 수강생, 강동문화예술인과 함께 전라북도 고창으로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사적145호로 지정된 고창읍성은 전라도민들이 외침을 막기 위해 축성한 것으로 유비무환의 슬기를 엿 볼 수 있었고, 일명 도술산이라고도 불리는 선운산의 선운사로 이동하여 보물 제290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을 비롯한 약 20여건의 지정문화재(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 도술암 마애불(보물 제1200호))를 보고 마지막으로 부안면 선운리 진마마을에 있는 미당시문학관을 방문하여 미당 서정주 시인의 흔적이 남겨진 유품, 사진을 보며 그의 작품세계에 빠져들었다. 강동문화대학은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실내학습과 현장학습으로 문화와 예술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번 기회에는 4기 수강생과 더불어 1~3기를 수료한 수강생과 문화회원을 포함하여 80여명이 함께 했다.

제1기 문화대학 때 답사지로는 원주로 토지문학공원에서 거장 박경리 선생의 흔적을 살펴봤고, 운곡 원천석 선생의 유택과 구룡사를 다녀왔다. 2기 때는 작년 10월경 문경의 조령

관, 조곡관, 주흘관을 걸으며 문화적 향취와 고고한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6월 3기 때는 충청남도 아산지역에 있는 현충사, 외암리 민속마을, 당림미술관 등을 견학하였다. 강동문화원은 우리나라 지방의 특색 있는 향토문화를 답사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학습을 통한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지역을 답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강의 역사와 문화 향토사 교육과정 소감문 발표 시상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은 향토사 교육과정(2009.7.28.~10.17.)을 강과 함께 흘러온 한강의 역사·문화 주제로 그간의 교육받은 청소년들의 소감문을 받아 심사해 소감문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강동문화원은 방학기간과 쉬는 요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에 대한 향토사 강의를 펼쳤다. 강의는 강변에서 꽃피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한강변의 우리 향토사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마련했다. 강의 신청을 받은 결과 정원 40명에 48명이 접수하여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강의는 강과 관련된 유·무형 자료를 활용한 이론중심의 교육과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잊혀져가는 강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청소년들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흥미롭게 진행 했다.

교육과정은 4대강 현황이론교육과 한강의 문화 이론교육, 탐사활동, 선사시대 체험, 민속놀이 체험, 야외사생 등 6개 과정17개 프로그램 강좌로 이루어 졌다. 그동안 이론교육부터 탐사까지 과정의 소감문을 제출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시상 대상자는 소감문을 발표했다. 소감문의 최우수상은 동북중학교 3학년 변상훈과 우수상 3명(이승민 하승장 남현수), 장려상은 6명(최건훈, 최원재, 이원규, 오수웅, 서강희, 강경희)이 시상과 부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너무 기뻐했다. 한편으로는 시상 못 받은 학생들은 “좀 더 성의 있게 써

냈으면 상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였다. 변상훈 학생은 “한강 문화 역사 탐방으로 나는 지금까지 줄곧 우리 곁에는 있었지만 관심이 없어 잘 알지 못하였던 한강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한강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유적지들이 있는 줄 몰랐고 우리가 긴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매우 좋은 기회였다” 고 소감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최하게 된 강과 함께 흘러온 한강의 역사와 문화 강좌의 운영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탐사활동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강동문화원은 우리 문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향토문화 사업에 주력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선문화원

정선군민을 위한

2009 문화의 달 국악공연 개최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은 지난 10월 30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의 달 10월을 마무리 하며 “2009 국악향연” 이라는 부제로 정선군민을 위한 국악공연을 개최했다.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의 정선아리랑장단 오프닝무대를 시작으로 유옥재 창작 무용단(정선아리랑 춤의 향연)과 유라예술단(강원소리의 흥, 정선의 신명)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졌다.

신중인플루엔자 확산에도 불구하고 손 소독기·세정제 등을 준비하여 민반의 준비를 갖춘 결과 예향의 고장 정선에 걸 맞는 전통 춤과 율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었다. 이번 국악공연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개최되었다.

지역문화활동가들의 열띤 현장속으로

2009 지역문화아카데미_ 지역문화활동가 연수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09 지역문화 아카데미 - 지역문화활동가 연수 (이하 연수)가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열렸다. 연수 대상은 전국 지역문화기반시설 종사자들로 공연기획·축제 담당, 시설(극장, 미술관 등) 관리자, 문화유산해설사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현장전문가들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문화 개발 관련 강좌로 구성된 "지역창조 프로그램", 전략적 기획서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주 시내 주요 지역문화 개발 사례를 탐방하는 "지역문화 답사", 주제별 토론회를 통해 지역문화 개발 사례를 구상하는 "모둠별 워크숍"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되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하라”

총 다섯 개의 강좌로 구성된 지역창조 프로그램은 '창조(창의)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이종호 부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는 창조도시의 개념과 지역문화의 생산자와 실천가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Slow City' 사례를 들어 국내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강연을 펼쳤다. 그리고 창조도시의 세계적 권위자인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의 사례를 들며 창조환경을 위한 선결조건과 총체적, 전략적 도시계획에서의 협치성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한 문화자원 지도그리기'의 류재홍 강사(Space Programmer)는 창조력의 키워드로 "문화=관념이미지", "지속가능성", "커뮤니티"를 들었다. 예술은 개념이 아닌 아이디어라고 주장한 그는 영국의 한 도서관이 "Idea Store"로 명칭을 변경한 후, 주민과 친근한 기관으로 재탄생된 예를 들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자원은 역사, 예술, 전통, 생활 등을 포괄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원으로 보고,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지역문화 정책, 사례를 강의한 이선철 대표(감자꽃 스튜디오)와 박은실 교수(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는 도시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뀐 사례를 들어 지역문화를 거점으로 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각 단체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좋은 기회”

연수는 5명씩 1모듬을 이루어 총 8모듬을 배정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모듬은 개별 업무현황 및 업무전략을 공유하여 모듬별 주제에 따른 윈윈(Win-Win)전략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수의 최종 과제는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예술촌', '지역축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었다. 40명의 지역문화활동가들은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갖으며, 보다 창의적인 아이템 구상에 열을 올렸다. "목표설정 및 기획의도의 적절성" "내용적 창의성 및 과급력" "호소력 및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심사에서는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주제로 한 8모듬 발표가 최우수로 뽑혔다.

이 날 연수에 참가한 박광무 국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은 "각기 다른 기관과 단체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특정 주제를 놓고 공통분모를 뽑아낸데에 박수를 보내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하였다. 이어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가 촘촘히 녹아들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도시의 창조는 활력넘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연수과정 내내 언급된 '창조도시'에 관한 강사진의 공통분모는 이렇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든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재해석이 가능하며, 문화 재생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40명의 지역문화활동가들은 도시의 창조는 곧 활력넘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각 지역에서 네트워크로의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였다. 올해 1기 연수생을 배출한 본 연수 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로 앞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정선영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학교 담당

제 24회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

제 24회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이 오는 11월 26일 정선군 고함읍 하이원호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정선문화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가 후원한다. 민족문화의 근간인 향토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전국 향토문화공모전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상내역

부분	시상	상금 (만원)	수상자	수상작
부문없음	대상(국무총리상)	500	고종호(정선문화원 사무국장)	정선지역 동학 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논문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50	이강욱(목포대 대학원 사학과)	월출산 마애불의 특징과 성격고찰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250	이용업(전주문화원 동국진체연구소장)	전북지역의 추사 김정희 금석문 연구
	특별상(국사편찬위원회장상)	100	김정찬(삼주고등학교 한문교사)	상주(尙州)의 연악구곡(淵巖九曲) 고찰
	격려상(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회장상)	100	권효숙(파주문화원 연구원)	조선시대 파주지역 분암(墳庵)연구- 파평윤씨가(坡平尹氏家) 성재임을 중심으로-
자료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50	양태부(강화역사문화연구소)	하곡 정제두의 가계와 '강화학파' 모지발견조사- 하곡 가문의 강화도 흔적을 중심으로-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250	김홍근(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연구소)	서울 북악산 도화동 원림유적의 원형경관에 대한 일고찰
	특별상(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100	이재완(독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울릉도 토산품의 역사와 '울릉도 오징어'의 근대적 창출- 무릉도원을 찾아 동해의 섬으로-
번외	격려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	최정훈(민족사관고 2년)	춘천, 횡성, 평창의 태기왕 설화 분석- 강원도 상고사 연구 사료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번외의 격려상은 수상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으로서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 평가함

충청남도지회 주최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워크숍 및 사무직원 직무교육

지난 10일에서 11일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의 대호농어민교육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의 각 문화원 종사자 및 관계자,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문화의 발전과 부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정희 충청남도지회장(당진문화원장)은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워크숍 및 사무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정옥자 국사편찬위원장, 이혜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 장상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총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하였으며 충청남도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80여명의 문화원 관계자와 지역의 문화 발전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문화원 종사자와 문화 행정 실무자들이 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깊이 있는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발전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1박 2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당진을 방문한 많은 분들에게 발전된 당진의 모습을 안내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지방문화원 발전 연구 TF 팀 구성

다변화하는 문화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철저한 자체진단과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모델의 필요성과 문화원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장기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와 주도로 지방문화원 발전 연구 TF 팀이 구성되었다. 지방문화원의 문제점 진단과 분석, 발전방안 제시, 문화원이 지역 중심 문화기관으로서의 전략적인 사업모델 제시, 2010년도 사업방향 수립 및 2011년 신규사업 개발, 각 지방문화원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을 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원 사무국장,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10~11월호 주요행사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중인 서천문화원은 지난 10월 23일 준공식을 가졌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준공식에 참석해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11월 11일에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및 여러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대구시지회장에 남구문화원장 이재녕 씨

대구시지회는 지난 9월 3일 정기총회에서 이재녕(李宰寧, 51세) 남구문화원장을 추대로 대구시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지회장 취임식은 지난 10월 13일에 대구은행 본점 3층 그린나래에서 열렸으며 대구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원장, 사무국장이 등이 참석했다. 이재녕 지회장은 대구대학교대학원 도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박사(도시개발전공)를 수료하였으며 현재 남구문화원장, 계명문화대학 초빙 교수 ㈜우주엔비텍·㈜우주종합건설 대표 이사로 있다. 이재녕 지회장은 '대구 8개 구,군의 문화원을 대표하여 광역시라는 도심 속 문화원의 특성을 살려 지역 내의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원의 활동영역을 지역주민들과 관계기관에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히며 '많이 부족하지만 10년 가까이 문화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느낀 모든 것을 역량으로 삼아 그동안 문화원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도 반성하며 아울러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법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고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원의 위상제고와 문화원의 존립기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대문문화원장 신현준 씨

서대문문화원은 지난 10월 13일 제3대 원장에 신현준(申鉉俊, 63세) 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11월 12일 서대문문화회관2층 소극장에 있었던 취임식에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하여 현동훈서대문구청장, 정두언 국회의원, 김성욱강남문화원장, 김윤철 관악문화원장, 심재득 종로문화원장, 박인호 은평문화원장, 이경동 양천문화원장, 장재식 전장관, 이정규전서대문구청장,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등 다수가 참석했다. 신현준 원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책과정을 수료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산업전략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우일산업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인간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문화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며 '문화원 부원장으로서의 경험과 CEO로서의 노하우를 문화사업과 연계시켜 문화소외계층에게 좀더 다양한 양질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대문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문화 복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신을 밝혔다.



연수문화원장 김원옥 씨 재선임

지난 9월 18(금)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원옥(金元玉, 64세)이 23표로 제3대 연수문화원장에 재선임되었다. 연수문화원 강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이사 21명(감사포함), 회원 35명으로 56명 중 참석 45명, 위임 5명이었다. 김원옥 원장은 업무개시 알림 및 문화원 발전을 위한 임직원간담회를 10월 28일에 가졌으며 취임식을 대신하였다. 김원옥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졸업 프랑스문학석사와 프랑스루앙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양대학교 프랑스문학과에 출강한 바 있으며 인천 프랑스문화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원옥 원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초석이 되고 있는 문화원 역할의 중요성 확인과 미래문화발전을 위해 연구·분석·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 이라고 다짐을 피력하였다.



동두천문화원장 안민규 씨 재선임

동두천문화원은 지난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안민규 씨(安旻65세)를 제12대 원장으로 추대하여 재선임되었다. 취임식은 지난 11월 1일 열렸으며 안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와 상호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향토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에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시사편찬사업의 원성과 향토사 조사와 사료의 수집 및 보관에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민규 원장은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수원대 산업경영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수료하였으며 국제라이온스협회354-H(경기)지구 총재를 역임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 회장을 맡고 있다.



청양문화원장 충청문학상 시 부문 본상 수상 정재권 씨

지난 10월23일(금) 오후 2시30분부터 스킨디나비안 클럽(국립의료원 내) 대연회장에서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 문학상은 매년 그 해 괄목할만한 작품 활동을 한 충청도 출신 문인을 찾아 수여하는 행사로 올해 20회째를 맞았다. 이에 시 부문에서 정재권 청양문화원장이 '내가 즐거운 이유' 로 시 부문 본상을 수상해 문화원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국내 유일의 24년 전통 향토사 학술연구 공모전

제 24회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이 오는 11월 26일 정선군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정선문화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가 후원합니다. 민족문화의 근간인 향토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전국 향토문화공모전으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내역

부분	시상	상금 (만원)	수상자	수상작
부문없음	대상(국무총리상)	500	고종호(정선문화원 사무국장)	정선지역 동학 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논문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50	이강욱(목포대 대학원 사학과)	월출산 마애불의 특징과 성격고찰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250	이용엽(전주문화원 동국진체연구소장)	전북지역의 추사 김정희 금석문 연구
	특별상(국사편찬위원회장상)	100	김정찬(상주고등학교 한문교사)	상주(尙州)의 연악구곡(淵嶽九曲) 고찰
	장려상(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장상)	100	권효숙(파주문화원 연구원)	조선시대 파주지역 분임(墳廐)연구- 파평윤씨가(坡平尹氏家) 성재암을 중심으로-
자료부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50	양태부(강화역사문화연구소)	하곡 정제두의 가계와 '강화학파' 묘지발견조사- 하곡 기문의 강화도 흔적을 중심으로-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250	김홍곤(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연구소)	서울 북악산 도화동 원림유적의 원형경관에 대한 일고찰
	특별상(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100	이재원(독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울릉도 토산품의 역사와 '울릉도 오징어' 의 근대적 창출- 무릉도원을 찾아 동해의 섬으로-
번외	격려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	최정훈(민족사관고 2년)	춘천, 횡성, 평창의 태기왕 설화 분석- 강원도 상고사 연구 사료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번외의 격려상은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으로서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 평가함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광역시도에 한국문화원연합회 16개 시도지회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27개소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문화를 통해 행복해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문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